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송 인 령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노래심리치료의 효과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배 문 주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노래심리치료의 효과

송 인 령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배 문 주

인 준 서

배문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양 은 아 인

심사위원 강 경 선 인

심사위원 송 인 령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감사의 글

“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 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음악치료를 공부하겠다고 무작정 상경을 하고 보낸 지난 3년 가까운 시간들은 제 자신을 지키고 이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좌절했을 때도 있었지만, 음악치료사라는 꿈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희망으로 또 한 걸음 내 딛습니다.

한 없이 부족한 저에게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따뜻한 마음과 지나친 사랑으로 항상 관심 가져주신 김경숙 교수님, 교수님이 계셨기에 제가 음악치료를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학문적인 세심한 가르침을 주신 강경선 교수님, 부족한 제 연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송인령 교수님, 양은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게 실습 슈퍼바이저로 또 멘토로 제 마음을 지켜 주신 현수경 선생님,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문정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우아한 5기, 동기 중 가장 막내로 부족한 저를 많이 챙겨주신 정신적인 지도자 경희선생님과 지영, 성환, 혜진, 혜정, 아라, 현주, 정은언니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영원한 5기 희진 언니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던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나에게 당근대신 끊임없이 채찍만 한 국어과 앵 선생님, 국가와 나를 지켜준 충성! 지은이, 진해시 건강을 지키는 최 간호사,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따뜻한 조언을 해 주 던 현지, 혜림이, 멀리 있지만 든든한 내 친구 근영, 지현, 진영이와 항상 올 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231 반주자 혜민이, 내 반주자 경신언니, 씩씩한 선영이, 멋쟁이 뉴요커로 영원한 내 룸메이트인 형은 언니, 우리 ESF 동기와 선배 후배들, 제게 믿음의 성장 기회를 주신 간사님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연구기간에도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면서도 끝까지 참여해준 연구 참여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연구가 끝나고 먼저 연락해서 안부 물어 보 던 다른 참여자 한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처음 연구 대상과 주제로 함께 고민 해 주 던 환우회 김영웅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불완전 희귀 난치 질환과 불완전 골 형성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수식어로도 부족한 사랑 하는 나의 가족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딸을 믿어 주시고 지금까지 챙겨주시는 경상도 사나이 아버지, 따뜻하고 항상 나를 이해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엄마, 지금 함께 있어서 힘이 되는 동생, 친구보다 더 친한 우리 할머니, 지금의 제가 있기 까지 늘 기도 해 주시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노래심리치료가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 까지 주 2회 총 14회기의 개별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 하였다.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K대학 부속병원인 G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불완전 골 형성증 성인 환자로 자아 개념 점수가 낮은 3명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성신자아개념 척도를 이용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단계별로 대상자의 언어적 음악적 반응과 행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에게 노래심리치료를 실시한 결과 참여한 대상자들의 총 자아개념 점수가 향상되었다. 대상자A는 45점에서 52.6점으로, 7.6의 증가를 보였고, 대상자B는 44.8점에서 50.8점으로 6점 증가되었다. 대상자C는 46점에서 50.4점으로 3.6점의 향상을 보였다. 대상자 모두 자아점수는 사전점수 보다 사후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자아개념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에게 노래심리치료를 실시하였고 자아개념 중 자아 존중감, 정서 안정성, 문제 해결능력의 언어적 · 음악적 반응을 회기별로 서술하고 분석한 결과 대상자들의 개인차가 있었으나 탐색 단계(4회기~9회기)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자아개념 증진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목 차

논 문 개 요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3. 용어 정의 6

Ⅱ. 이론적 배경 7

1. 불완전 골 형성증 7
   1) 불완전 골 형성증의 개념 및 특징 7
   2) 불완전 골 형성증의 진단 및 치료 10
2. 자아 개념 12
   1) 자아개념의 정의와 특성 12
   2)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와 자아개념 14
3. 노래 심리치료 15
   1) 노래 심리 치료의 접근 방법과 자아개념 15
   2)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와 노래심리치료 17

Ⅲ. 연구 방법 20

1. 연구 대상 20
   1) 연구 대상자의 선정 20
   2) 연구 대상자의 배경 정보 21

2. 연구 도구 25
1) 성신 자아개념 검사 25
3. 연구 설계 및 절차 27
1) 연구 설계 27
2) 연구 절차 28
4. 연구 자료 분석 28
5.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29
1) 프로그램의 구성 29
2)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 31
3) 대상자별 프로그램 구성 35
Ⅳ. 연구 결과 43
1.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사전·사후 자아개념 결과 43
1) 대상자 A 44
2) 대상자 B 45
3) 대상자 C 46
2. 회기별 대상자들의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47
1) 대상자 A 47
2) 대상자 B 61
3) 대상자 C 74

Ⅴ. 결론 및 제언 89
1. 결론 89
2. 제언 93

참 고 문 헌 94
ABSTRACT 102
부록 104

표 목 차

<표 - 1> 불완전 골 형성증의 Sillence 분류 8
<표 - 2> 연구 대상자의 정보 21
<표 - 3> 자아개념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수 및 신뢰도 27
<표 - 4> 각 단계별 목표 및 회기별 프로그램의 주요활동 29
<표 - 5> 노래심리치료의 회기별 구성 31
<표 - 6> 대상자A의 노래심리치료프로그램 구성 36
<표 - 7> 대상자B의 노래심리치료프로그램 구성 38
<표 - 8> 대상자C의 노래심리치료프로그램 구성 41
<표 - 9> 대상자별 총 자아개념점수 사전 · 사후 비교 43
<표 -10> 대상자A의 자아개념 하위 영역별 사전 · 사후 비교 44
<표 - 11> 대상자B의 자아개념 하위 영역별 사전 · 사후 비교 45
<표 - 12> 대상자C의 자아개념 하위 영역별 사전 · 사후 비교 46
<표 - 13> 대상자A의 '준비단계'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분석 47
<표 - 14> 대상자A의 '탐색단계'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분석 50
<표 - 15> 대상자A의 '창작단계'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분석 54
<표 - 16> 대상자B의 '준비단계'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분석 62
<표 - 17> 대상자B의 '탐색단계'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분석 64
<표 - 18> 대상자B의 '창작단계'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분석 68
<표 - 19> 대상자C의 '준비단계'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분석 75
<표 - 20> 대상자C의 '탐색단계'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분석 77
<표 - 21> 대상자C의 '창작단계'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분석 82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불완전 골 형성증(osteogenesis imperfecta)은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이상으로 뼈가 쉽게 부러지는 선천성 희귀 · 난치성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5,000～20,000명 중에 1명꼴로 발병하지만 사산, 출산 과정이나 출산 직후 숨지는 사례가 많아 대략 500~ 10,000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송해룡, 2006). 이들은 빈번한 골절로 잦은 수술을 해야 하고 척추 측만 증을 동반 하게 되어 심폐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며(이승원, 김현주, 조재현, 이형숙, 정연무, 김대중, 이관우, 정윤석, 2004), 청색공막, 난청, 치아발육부전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김종수, 최승도, 선우재근, 배동한, 2004). 이러한 증상들은 장기화 되면서 환자들에게 과다한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높이고 가족과 사회집단 내에서의 관계 혼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유발한다(김혜란, 2004).

불완전 골 형성증은 질병이 중복되고 만성적이므로 나타나는데 환자들은 질병의 증상 정도가 차츰 심해짐에 따라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조계화, 성기월, 2000). 불안한 심리상태는 자기 신체의 열등감으로부터 시작되고(오영희, 2005),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열등감은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게 되어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으로 인한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조영미, 2005; 이영미, 2004).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과 불안한 정서는 여러 가지 발달을 저해하는 내적 요인으로 사회 부적응을 초래한다(최소림, 2006). 특히 환자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족과 사회집단 내에서의 관계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개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김혜란, 2004; 곽성혜, 2002). 따라서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들은 평생 동안 현실적 신체상과 이상적 신체상 불일치의 문제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위축과 열등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정적 신체상을 가지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왜곡된 개념으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부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이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회피하려는 문제 해결능력에서의 어려움과 정서적 불안을 호소한다(양참삼, 1999). 반면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경험 하게 해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기 때문에 성취감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안정감 느끼게 한다(박준경, 2008). 그러므로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은 이들이 앞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자기 가치감 향상과 더불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대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리, 정서적 영역의 문제점 파악과 대안방법과 관련 된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 하고(김혜란, 2004; 이명은, 2007), 일부 질환에 대한 실태 및 환자의 요구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전부이다(김남길, 2009). 특히 불완전 골 형성증 질환자에 관한 연구는 유병율 파악과 치료방법에만 그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심리 치료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구조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져 안정성과 만족감을 주는 음악은 긍정적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윤소연, 2001), 안정된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자아상을 갖도록 하며(Gaston, 1968), 자아개념 형성에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진다. 또한 자기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고 긍정적이

고 일관된 지지를 경험하게 하며,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갖고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이점을 가진다(Broczon, 1997). 이러한 음악을 심리적 도구로 활용하는 음악치료는 자아 존중감이 낮고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가 된다.

음악치료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을 위해 청소년(유영선, 2003 ; 임해주, 2008 ; 조희진, 2003), 정신 분열증 성인(김경화, 2003) 등 많은 대상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있다. 유영선(2003)은 즉흥연주 음악치료가 일반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임해주(2008)는 집단노래심리치료가 보육시설에 있는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개인차는 있었지만 자아개념에서 부분적인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김경화(2003)는 정신분열증 성인들에게 12회기 음악치료를 적용했고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개념과 동작표현과의 관계를 밝혔고 이러한 연구들은 음악치료가 긍정적인 자아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자아개념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음악치료 중재 방법,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좀 더 폭넓은 대상에게 적용의 필요성이 논의 되고 있으며(김경화, 2003), 대상자에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음악치료의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유영선, 2003).

노래심리치료는 음악치료의 중재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확인하고, 그 문제를 객관적 입장에서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가 보이는 부정적 자아상과 관련 된 내재적 문제점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노래심리치료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하는데 효과적 인데, 강수진(2009)은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부적응 중학생의 비 학업 자아개념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미정(2009)은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이 인터넷 게임중

독 청소년의 정서 자아개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래심리치료와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래심리치료가 골 형성증 부전증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들에게 노래심리치료의 중재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노래심리치료가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노래심리치료는 불완전 골 형성증 성인 환자의 총 자아개념 사전 ·사후 점수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1-1. 자아개념척도 하위영역 자기 존중감 사전 ·사후 점수 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1-2. 자아개념척도 하위영역 정서 안정성 사전 ·사후 점수 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1-3. 자아개념척도 하위영역 문제해결능력 사전 ·사후 점수 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2. 노래심리치료를 통해 불완전 골 형성증 성인 환자의 자아개념 하위영역인 자아 존중감, 정서 안정성, 문제 해결 능력의 언어적 · 음악적 반응이 회기별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3.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아개념 (self-concept)

자아개념은 행동을 결정하고 성격을 형성하는 핵심으로써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 했을 때 자기에 대한 정의이며 자신에 대해서 품고 있는 신념을 말한다(김용국, 1997).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하위 영역 중 '자아존중감, 정서안정성, 문제해결능력' 3개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2) 불완전 골 형성증 (Osteogenesis Imperfecta)

불완전 골 형성증은 결체조직의 형성부전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과 청색공막 및 난청을 특징으로 하는 골격계 희귀 · 난치성 질환이다(이중원 외, 2005).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 골 형성증 진단을 받고 자아개념점수가 50점 이하의 성인으로 정의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불완전 골 형성증

1) 불완전 골 형성증의 정의 및 특징

불완전 골 형성증(Osteogenesis Imperfecta)은 특별한 외부의 충격 없이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골 형성 부전증, 골화부전증 등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신생아 2만~6만 명 중 1명의 빈도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의 경우 매년 약 20~25명 정도가 태어나며 전국적으로 약 500~1000명 정도 환자가 있다. 불완전 골 형성증은 alpha-1, apha-2 type Ⅰ procollagen의 유전자인 COL1A1과 COL1A2의 돌연변이로 인한 type Ⅰ procollagen 생성의 결손으로 인체 내의 콜라겐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이상으로 발병한다(김종수 외, 2004). 다시 말해 인체 내의 콜라겐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발병하며 콜라겐이 관여하는 각 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청색공막(blue sclera)이 있는데, 이는 콜라겐이 많이 있는 공막에 그것이 부실하여 그 속에 있는 혈관들이 비쳐보여서 푸른색의 흰자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 빈번한 골절력(brittle bone), 점진적인 골의 변형, 만성적인 통증, 청력감소, 치아이상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이승원 외, 2004).

불완전 골 형성증은 1906년 Looser에 의하여 선천형과 지연형으로 분류하였고 1949년 Seedorf는 지연형을 다시 두 가지 형으로 세분화 하여 생후

부터 1년 이내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를 Gravis형, 1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Levis형 이라 분류하였다. 이후 Falvo는 1974년 지연형을 장골의 기형 유무에 따라 굴곡기형이 있는 경우를 Tarda형 Ⅰ, 그리고 없는 경우를 Tarda형 Ⅱ로 분류하였다(최기홍 외, 1976). 이 후 임상적 중증 도에 따라 Sillence(1979)는 4형의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분류 방법은 청색공막, 치아 결손 등과 같은 임상양상의 그 기반을 둔 것으로 4형의 분류는 <표-1>과 같다(이덕용 외, 2002).

<표-1> 불완전 골 형성증의 Sillence 분류(이덕용 외, 2002, p.105)

	Ⅰ	Ⅱ	Ⅲ	Ⅳ
Dentinogenesis imperfecta	A: - B: +	Unknown	+	A: - B: +
Blue sclera	Distinctly blue throughout life	Dark blue scalra	None	None
Chinical pattern	Relatively mild some moderate	Perinatal lethal	Fractures at birth; progressive deforming	Variable
Growth retardation	Mild	Severe		Variable
Hearing loss	40%	Unknown	Rare	Raea

Type Ⅰ은 Sillence의 4형의 분류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며, 치아의 불완전 상아질 형성부전증의 발병의 유무로 인해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눈의 흰자위인 공막이 푸르스름하거나 회색빛을 띄는 청색공막(Blue Sclera)과 청력소실이 나타난다. 그 외 신체적 특징으

로는 삼각형 모양의 얼굴과 큰 머리를 가지며 약 50%는 출생 후 성장결핍을 경험하고 성인 중 약20%는 척추 측만증 혹은 척추 후만증이 나타난다.

Type Ⅱ는 불완전 골 형성증 중 증상이 가장 심하며 출산 전 자궁 안에서 태아의 뼈의 골절이 일어나 치명적 기형 및 유산, 사산의 비율이 높다. 특히 신생아에게 가장 많은 형이며 1/54,0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상아질 형성 부전증이 나타나고, 청색공막을 가지며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특히 몸통의 길이가 짧고 폐가 덜 발달되어 호흡부전증으로 인해 호흡곤란의 증세가 나타난다.

Type Ⅲ는 신생아기 후에 생존한 환자 중 가장 심한 형태로 매우 작은 키와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지와 척추의 심한 형태적 변형 등의 특징을 가진다. 상아질 형성 부전증과 청력손상과 청색공막을 보이지만 청색공막의 경우에는 생 후 1년 동안 없어진다. 또 얼굴의 형태는 앞이마가 튀어나온 삼각형이며 턱이 비정상적으로 작으며 호흡기 계통의 합병증 및 폐 고혈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 키가 대단히 작아서 성인이 되어도 110cm 이하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독립 보행을 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 하게 된다(이상열 외, 2007 ; 이형숙 외, 2003).

Type Ⅳ는 Type Ⅰ과 Type Ⅲ의 중간 정도의 증상을 보이며 다른 형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물리적 자극으로 인한 잦은 골절이 생겨 골격의 성장 저해나 이상형성이 이르게 된다. 또한 얼굴형태가 삼각형이며 하지는 심한 만곡을 보이고 청색공막을 띄지만 나이에 따라 엷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아질 형성부전증은 Type Ⅰ처럼 발병 유무로 인해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진다(대한정형외과학회, 2006 ; 신규호, 2002). 최근에는 전완골 사이의 연부조직에 칼슘침착소견이 보이는 Type Ⅴ가 보고되고 있으며 유병율은 전체 불완전 골 형성증의 5%에 해당된다. 하지만 Type Ⅴ에 관한 정확한 원인은 현재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해룡 외, 2006).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는 발육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키가

130cm 미만의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으며 하체의 뼈 형성이 미숙하여 다리를 쓰지 못 하고 길이의 차이를 보이는 등, 보행에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상. 하체의 발육부진으로 인해 체구가 매우 작으며 척추가 휘어 있거나 튀어나오는 심한 척추 측만의 증상을 지닌다(안설인, 2002). 이와 같이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들은 심한 신체적 장애 및 기능장애를 보인다. 대부분 완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투병을 하게 되며 특히 질병의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의약품이 한정되어 있어 이들을 위한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

2) 불완전 골 형성증의 진단 및 치료

불완전 골 형성증은 1686년 Malebranche에 의해 처음 진단되어 기술되었고, 1978년 Eckman에 의해 처음 보고 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가 보고 되었다. 뼈가 잘 부러지는 불완전 골 형성증은 일생동안 적게는 30번 많게는 50번 정도 신체 각 부위의 골절로 인해 여러 차례 골절 수술 및 기형교정술이 필요하게 된다(이상열 외, 2007).

불완전 골 형성증의 진단은 1982년 Shapiro의 생화학적 진단 방법을 시작으로, 골절력, 골절 이외의 각종 신체검사 소견, 방사선 검사, 가족력 등 종합하여 진단할 수 있다(허준영, 2009). 그러나 결정적인 진단 방법의 결여와 가족의 2/3, 환자의 1/3에서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 상담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으며(김종수 외, 2004), 다양한 골절기형들인 연골형성 부전증(achondroplasia), 저인산효소증(hypop hosphatasia), 고정성 골다공증(immobilization osteoporosis), 선천성 매독(congenital syphilis), 구루병(rickets) 등과도 구별이 쉽지가 않아 진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안설인, 2002).

불완전 골 형성증은 유전적인 이상, 교원질 합성장애, 골연약성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 하기는 어렵다. 골절과 그에 따른 변형에 대한 치료와 예방적 처치로 외과적 수술 치료와 약물치료 두 가지 치료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김석원 외, 2007).

외과적 수술 치료 방법은 금속 막대를 수술을 통해 긴뼈에 삽입 하는 '다발성 재정렬 절골술과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경피적 금속정 삽입술'이 있다. '다발성 재정렬 절골술과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은 대게 3~5세 이후에 시행하는데 확장가능한 골수강내 금속정 또는 근위 및 원위 골수강을 겹쳐지게 삽입하는 방법으로 장관골의 정렬을 유지할 뿐 아니라 각 변형으로 인한 기능적 장애를 없애고 재골절의 위험을 줄인다. '경피적 금속정 삽입술'은 보행기 이전에 재발하는 골절과 심한 변형으로 발달에 장애가 있을 때 하는 수술방법으로 최소 노출과 도수로 파골 술을 하고 경미 적으로 금속 정을 삽입하는 수술 방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잦은 골절을 예방하며, 체중을 실으며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금속 막대로 인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며 금속판 끝 부분이 재 골절 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신규호, 2002 ; 이덕용, 2002).

약물치료 방법 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가 있다. 골절 감소, 동통 감소, 대사를 억제하여 칼슘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최근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제제의 일종인 파미드로네이트(pamidronate)의 주기적인 정주가 불완전 골 형성증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보고 되었다(이승원 외, 2004 ; 조태준 외, 2003). 이러한 약물치료는 성장이 종료된 성인이나 증상이 가벼운 경우 골밀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약물로 인한 골 흡수 저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적극적인 사용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이상열 외, 2007).

근래 들어 의학의 발전으로 불완전 골 형성증과 같은 희귀 난치질환의

진단방법 개발되면서 매주 새로운 질환이 추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1년부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희귀 난치질환자의 의료비지원 대상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01년에는 '한국 희귀난치 질환 연합회'를 창립하고 '희귀난치질환자쉼터'를 개설하며 의료복지에서 문화 복지, 교육자활 사업으로 점차 지원 영역을 넓히고 있다(김남길, 2009).

이와 같이 불완전 골 형성증은 완치법이 없는 희귀 · 난치성 질환으로 외과적 수술과 약물치료에 의존하며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다. 대부분 만성 질환에 속해 오랜 기간 투병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감과 지속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다(곽성혜, 2002). 이러한 심리적 상황은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 자신의 삶에 대한 의욕상실과 자아 존중감의 저하로 나타나며 부정적 자아상 및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자아개념

1) 자아개념의 정의와 특성

자아개념(self-concept)은 자신(ego), 자아(self), 자아지식(self- knowledge), 자아정체(self-indentity), 자아상(self-image), 자기이해(self- understand)등으로 말할 수 있으며(김경탁, 2004),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와 태도로(김정규, 1999),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인식 및 평가를 반영하는 인지적 관념, 혹은 인지 도식을 의미한다(권석만, 1996). 이런 맥락에서 자아개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으로 '나'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자기 지각을 의미한다(강경래, 2005). 즉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각

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 관념,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김정규(1999)는 자아 개념의 하위요소를 5가지고 구분하였다. 즉 자아 존중감(self-esteem), 정서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대인관계 능력(interpersonal),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대인신뢰감(interpersonal trust)로 나눴고, 자신의 행동과 특성에 따라 그 적응 유형을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구분했다.

먼저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긍정적 자아평가, 자아 존중감, 자아 인정감, 자아수용과 같은 개념으로 분류하였고(송인섭, 1998), 특히 자신의 성취동기가 높을 때 생기게 되며(권은경, 2003) 이를 통해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바르게 인식하며,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문제 해결능력이 높다. 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자아평가, 자아 멸시, 열등감, 개인적 무가치, 자아거부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에 장애를 가져 오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이로 인해 우울감과 정서적 불안이 생겨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된다(오경주, 1998).

자아개념은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형제, 친구, 선생님 등 중요한 타인들과의 접촉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며 성격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비교적 일생동안 변치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개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김정규, 1999).

이와 같이 자아개념은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간주된다. 특히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는 대부분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어 성취동기가 낮고 삶에 대한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므로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심리치료 개입이 요구된다.

2)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와 자아개념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는 신체의 일부가 이상 형태이거나 부족한 능력 때문에 좌절감이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특히 소극적인 성격과 위축감으로 인한 낮은 인지기능은 상황판단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분별력을 떨어뜨리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문제는 낮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고 불안한 정서와 일관성 없는 태도로 타인과의 신뢰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김경희, 2004). 이러한 심리적 상황은 불완전 골 형성증과 같은 신체장애자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권기덕, 1981). 자아개념은 성장과정에서 확립되고 부모, 교사, 또래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골절의 위험이 높고 눈에 띄는 왜소한 체구로 외부의 노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또래 및 대인 관계를 형성 하지 못한다.

자아개념은 신체상과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 불완전 골 형성증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환자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위축이 가중시키므로 정신 치료적 개입,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문혜원 외, 2001). 김춘선(2004)은 자아개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595명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결과 장애인의 자아개념 점수가 낮았고, 낮은 자아개념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는 일생동안 경험하는 잦은 골절과 반복되는 수술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 상황을 수 차례 경험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체적 열등감,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장애로 나타난다. 따라서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심리 치료의 개입이 요구된다.

3. 노래 심리치료

1) 노래 심리 치료의 접근방법과 자아개념

노래심리치료는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의 한 가지 기법으로 대상자의 내면 문제를 자연스럽게 투사 할 수 있게 유도하고(Bailey, 1984),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주는 핵심 감정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 수용, 다스리도록 한다. 특히 노래심리치료의 주 자원이 되는 노래는 인간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을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기 방어가 심한 사람에게 비 위협적인 접근과 적절한 표현을 돕는다(정현주 외, 2006).

이러한 노래심리치료는 다양한 치료적 기능을 한다. 최미환(2006)은 “노래의 치료적 기능을 네 가지로 보았다. 첫째, 인간의 본질을 반영하고 인간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을 여러 차원의 수준과 정도로 전달하고 있어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차원의 감정들을 반영해 주며, 대상자의 문제와 상태를 수용하고 비 위협적으로 외부에 표현해 준다. 둘째, 삶의 다양하고 보편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으므로 내담자가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깊이 관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구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내담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활동으로 변화되어 적용되므로 개별화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다양하게 작업형태를 변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래심리치료는 노래를 통해 문제가 있는 자신의 내면의 이슈들을 직접 언어로 표현하기 꺼려하는 내담자에게 제 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치료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래를 이용한 심리치료는 부담스런 주제도 자연스럽게 이

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줌으로써 내담자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박수정, 2002), 음악치료의 다른 접근 방법보다 자아개념에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손현자, 2009; 이미정, 2009; 이정민, 2008, 정혜선, 2003).

노래심리치료와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는 연구들은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노래심리치료는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자기의식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 시키며(김선미, 2007), 십대 미혼모들의 자기수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이승진, 2009). 그 중 노래 만들기는 알코올 의존자의 부정적 자기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현수경,1999), 성인의 화상환자의 자기지각과 자아 존중감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오상희, 2004). 또한 노래 만들기를 비롯한 노래 부르기와 악기연주, 음악 감상은 중증의 학교 부적응 학생의 무단결석, 무단조퇴 폭언 수업태도 불량과 같은 부적응 행동의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문영애, 2002), 경증 장애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최소림, 2006).

이러한 노래심리치료의 치료적 기능은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고 직면하게 도와주며 스스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적합한 중재기법이 된다. 특히 노래심리치료의 'PEC 과정 모델'은 최미환(2004)이 국내 성인들의 정서를 포함하여 핵심 감정의 확인 및 성찰을 목적으로 정립한 체계적인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노래를 매개로 좀 더 구조화된 상태에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한다.

PEC(Preparing-Exploring-Creating)과정 모델은 '준비-탐색-창작'이라는 3단계로 구성된다. 첫 째, 준비단계는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며 치료에서 다룰 치료 방법을 검토하며 분석을 위한 준비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낯설거나 부담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익숙한 기존 노래를 감상, 회상하고 노래 부른다. 둘 째, 탐색단계는 대상자가 '노래-나'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로 심화된 가사를 분석하며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핵심감정

을 파악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자는 노래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방법(개사, 작사, 노래 변주, 멜로디 창작)을 시도하고 자신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표현 방법을 찾는다. 셋 째, 창작 단계는 탐색단계에서 연습한 음악 기술과 작업 방법을 활용하여 가장 편안한 표현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드는 과정으로, 만든 노래를 가사와 멜로디를 분석하면서 현재 감정, 문제, 갈등, 해결방법을 이야기 한다(최미환, 2004).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들은 노래심리치료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래 심리치료 중 PEC과정의 체계적인 중재 방법은 무의식의 자신을 만나고 문제점을 직면하게 하며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 정서적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에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을 위한 적합한 심리적 중재 방법이다.

2)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와 노래심리치료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는 태어날 때부터 쉽게 골절이 되는 질환으로 평생 동안 신체적 고통을 겪는다. 더군다나 대부분 복합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 고통은 더 극심하다.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이 낮아져 사회성 결여와 성격 발달 및 행동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들이 심각하게 작용하며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며 집안에만 머무르는 소극적인 활동영역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들 중에는 종종 지적 장애나 언어장애 또는 감각장애를 수반하기도 한다(최병철, 1996). 신체장애로 분류되는 골 형성 부전증 환자들에게는 보고, 듣고, 만지는 예술적 경험을 유도하여 부족한 감각적 정보와 환경을 넓혀가는 것

이 필요하다(고경은, 2005).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들의 무리한 신체적 움직임은 뼈를 부러지게 하거나 금속 막대 수술 부위에 자극을 주게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Prinscilla, 1996). 따라서 신체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활동 보다는 노래를 듣고 부르는 노래 중심의 음악 활동은 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적 경험 제공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이다.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들은 보통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수술과 입원으로 인해 병원에 머무르는 등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노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특히 이들은 노래와 같은 예술적 경험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제약과 부담감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인다(고경은, 2005).

노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표현 수단의 하나로 정서적인 표현의 통로가 되고(임학기, 2003),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활동으로 응용하여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무의식의 자신을 전달하며, 개별화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정현주 외, 2006). 노래는 노래심리치료의 수단으로,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와 같이 다양한 문제를 지닌 대상자들의 자아 존중감과 정서 안정성과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김선미, 2007; 이승진, 2009; 정현주 외, 2006). 노래심리치료는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자기 탐구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억압되고 들어나지 않은 심리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 하도록 돕는다(정현주 외, 2006).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와 같은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신체적 재활을 위한 치료적 음악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김지현, 2005;우영진, 2007), 이들의 심리적 결핍과 정신적 성숙 감을 위한 음악치료와 노래심리치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경우에는 무리한 악기 연주가 힘들기 때문에 신체 재활을 위한 음악치료 보다는 우울과 불안감, 낮은 자신감과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지체부자유 특수 청소년의 음악수업 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지체부자유의 학생들이 가창수업을 가장 좋아하며(임학기, 2003), 노래 부르기를 포함하는 노래 활동은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정신적 성숙감 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미정,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에게 노래심리치료가 자아존중감과 정서 안정성, 문제 해결능력을 포함하는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1) 연구 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K대학 부속병원인 G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 중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신청한 지원자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중 총 자아개념 점수가 낮은 대상자 3명을 선정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불완전 골 형성증 진단을 받은 20세 이상의 성인
(2) 과거 음악치료를 받지 않은 성인
(3)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성인

2) 연구 대상자의 정보

본 연구의 대상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3명의 불완전 골 형성증 성인으로, 연구 대상자의 정보는 다음 <표-2>과 같다.

<표-2> 연구 대상자의 정보

사례 / 구분	A	B	C
연 령	24세	23세	48세
성 별	남	남	여
학 력	전문대졸	고 졸	무 학

3) 연구 대상자의 배경 정보

① 대상자 A

대상자 A는 24세 남성으로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뼈를 핀으로 고정한 상태라 다리를 굽히거나 힘을 줘 지탱하기 힘든 상태이다. 8살 이후로 1년에 2~3차례 골절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했고 17세 때에 불완전 골 형성증이란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 할머니, 부모님, 누나, 남동생이 있었고, 농사일을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할머니의 보호와 돌봄을 받았다. A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다투고 가정불화가 심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는 8살 때 어머니는 14살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작은아버지 댁에 맡겨져 생활을 했지만, 작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힘든 생활을 보냈다.

A는 학창시절 대부분을 병원과 집에서 보냈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므로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뼈가 부러져도 병원을 가지 못 해 압박붕대를 감아서 고통을 참기도 했으며 휠체어를 살 형편이 되지 못해 초등학교 때에는 유모차로 이동했다. 골절로 인한 수술 후에는 뼈가 잘 붙지 않아 거의 몇 달 동안을 목발을 짚고 다녔고 친구

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했다. A는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기 위해 특수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몇 차례 입학 거절을 당하면서도 일반학교를 진학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대학교 까지 졸업을 했다.

A는 지금까지 약 25~30회 이상의 전신마취와 다리 수술 받았고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을 오가며 입 ·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몸 상태는1년 전보다 좋지 못해 목발을 짚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해져 두 손과 두발 로 기어 다닌다.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작년 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을 갖지 못해 무직인 상태이다.

A는 치료사와 눈 맞춤이 쉽게 이뤄지지 않으며 목소리가 작고 말끝을 흐리고 발음이 분명하지 않다. 앉을 때의 자세는 어깨와 등이 매우 구부정하며 얼굴은 무표정이며 표정변화가 거의 없으며 자신감이 결여 되어있고,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며 자존감이 상실된 상태이다. 자신과 타인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치료사의 어떠한 말이든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인다. 또한 어떠한 과제가 주어지면 회피하지는 않지만 고민하며 몇 번이고 수정을 반복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능력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 A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과거에 부모님이 힘들어 했으며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극복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다.

② 대상자 B

대상자 B는 23세 남성으로 대상자 A의 동생으로 같은 불완전 골 형성증이다. 목발을 짚고 다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거의 앉아서 생활하며 과체중과 약간의 척추 측만 증을 보인다. 태어나서부터 잦은 골절이 있었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건 16세 때 이었다. 정확한 진단을 받기 이전에는 많은 병원을 내원 했지만 '불완전 골 형성증'이라는 희귀병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부족으로 일반 정형외과적인 수술 치료를 반복해서 했다. B는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A(자신의 형)가 받은 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과 자신의 형 때문에 항상 괴로워했고 그럴 때 마다 술을 드시는 모습과 어머니도 괴로움에 집을 비우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B의 아버지는 6살 때 술을 드시고 밭일을 하시다가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3살 때 돌아가신 후 작은아버지 댁에서 생활 했고 작은 아버지로부터 잦은 구박과 폭력을 당했다.

B의 초등학교, 중학교시절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맞기도 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기억했고, 고등학교 생활은 그 당시만큼 힘들지는 않았다고 했다. B는 작은아버지 댁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고등학교 근처에서 친구와 생활을 했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렸던 기억은 거의 없었으며 학교에서는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B는 2년 전 자신과 형의 수술과 통원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K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했고, 그 해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이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며 도움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돈을 작은 아버지에게 뺏겼고 현재는 자신과 형의 장애수당, 누나의 도움으로 형과 단 둘이 살고 있다.

B는 몸을 쉴 세 없이 앞, 뒤로 움직이며 시선교환이 어렵워 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치료의 질문에는 대답하기를 거절하거나 갑자기 다른 말을 하기도 했고 다시 되물어 보는 경우를 보이며 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하다.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많다고 했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고 꿈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많이 상실 된 상태이다. 이 외에도 좋고 싫음에 대한 의사표현이 분명하고, 성격이 급하다. 인상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고개를 숙이거나 한쪽으로 기울이기도 한다.

③ 대상자 C

대상자C는 48세 기혼여성으로 4세 이후 병명도 모른 채 골절로 인한 잦은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18세가 넘어서 불완전 골 형성증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C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한글도 스스로 깨쳤다. 26세 때에는 우연한 기회로 직업교육을 받게 되었고 13년간 편물 공장에서 일을 했다. 10년 전 결혼을 했으며 남편은 척추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5급으로 현재 무직상태이고 C와 같은 질환을 가진 9세 딸이 있다. 남편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나 가끔 딸의 문제로 다투기도 한다.

C는 몇 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머리가 자주 아파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고 불완전 골 형성증의 증상인 청색공막과 심한 척추측만을 보이며 호흡이 고르지 않으며 숨이 거칠다. 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어서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두 손을 이용해 이동한다.

대상자C는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고 가족들이 자주 병원에 입원 하지만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다. 과거 자신의 원인 모르는 질병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했으며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딸마저 자신으로 인한 유전으로 불완전 골 형증 진단을 받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때 괴로움을 느낀다고 하며 자아 존중감이 상실된 상태이다. C는 어려운 상황과 부담스러운 과제가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편으로 문제 해결능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자신이 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짜증을 내며 언어는 사용은 거친 편이고 욕을 하기도 하며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다.

2. 연구 도구

1) 성신 자아개념 검사

성신 자아개념 검사는 Deusignger(1986)의 '푸랑크 푸르트 자아개념 검사'와 Battle(1992)의 '문화 영향이 없는 자존감 척도(Culture Free Self Esteem Inventory)'에 근거하여 김정규(1999)가 한국 실정에 맞게 제작한 것이다. 이 검사는 실제적인 자기 모습에 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내담자의 심리치료 효과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치료방법의 효과를 비교 연구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성신 자아개념 검사는 평가점수가 최상부터 최하까지 7단계의 등급을 두고 있으며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최상, 65~69점은 상, 55~64점은 중상으로 나눴으며 45점~54점은 중, 35~44점은 중하, 31점~34점 사이는 하, 30점 이하는 최하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이 검사는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요인은 자기 존중감(self-esteem; 19문항), 정서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16문항), 대인관계 능력(interpersonal relationship; 16문항), 문제해결 능력(problem solving; 17문항) 및 대인 신뢰감(interpersonal trust; 18문항)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문항에 대해 6점 Linker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정규가 보고한 각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각각 .91, .87, .90, .89, .83이며 총 자기개념 척도의 신뢰도는 .96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 수준이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개념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상자와 사전 인터뷰를 통해 필요에 맞게 수정 및 재구성 하였고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인 '자기 존중감, 정서 안정성, 문제 해결능력'으로 이루어 졌다.

(1) 자기 존중감(self-esteem)

자아 존중감 척도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 신뢰감,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높은 점수인 경우에는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이다. 반면, 낮은 점수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며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기며 자신감이 없고 삶에 불행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로, 이는 자아(self)가 얼마나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 하위 문항은 '7 나도 다른 사람만큼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등 19문항이 포함되고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91 이다.

(2) 정서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정서안정성 척도는 감정의 기복과 예민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높은 점수인 경우 정서가 안정되어 있어 주변상황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반면, 낮은 점수인 경우는 정서가 불안정해 타인이나 주변상황에 의해 쉽게 상처받거나 동요된다. 하위 문항은 '1 나는 쉽게 감정이 잘 상한다'가 포함 된 16문항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87 이다.

(3) 문제해결 능력(problem solving)

문제 해결능력 척도는 일이나 문제 상황에 당면 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높은 점수인 경우 자신감을 갖고서 상황판단을 하며, 일단 결정을 내리면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해서 해결한다. 반면, 낮은 점수 일 경우 자신감이 부족하며 문제 상황에 처하면 쉽게 당황하고 미리 포기해 버

리거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한다. 중요한 결정을 잘 못 내리고 늘 망설이며 시간을 지연시킨다. 하위문항은 '13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회피해 버린다'가 포함 된 17문항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89이다.

<표-3> 자아개념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수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Alpha
자아 존중감	19	5,7,8,11,12,17,21,32,37,40,41, 49,50,64,71,77,79,81,83	.91
정서안정성	16	1,3,6,9,28,51,55,58,65,67, 76,78,80,84,85	.87
문제해결능력	17	13,16,18,23,25,27,30,36,39,47, 52,59,60,61,63,68,73	.89

3. 연구 설계 및 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노래 심리치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신 자아개념 척도를 이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오디오 녹음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자기개념과 관련된 언어적, 음악적 반응을 성신 자아개념 척도 하위영역 '자아 존중감, 정서 안정성, 문제 해결능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 골 형성증 성인 환자의 자기 탐색 및 발견과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을 위해 개별 노래심리치료를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2010년 3월 2일~ 4월 15일까지 주 2회, 50분씩 총 14회기 개별 세션으로 진행된다. 실험 1주일 전 음악 선호도를 조사, “성신 자기개념 검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실험이 끝나고 1주일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오디오 분석을 통해 언어적, 음악적 반응을 기록 분석하였다.

4. 연구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준비-탐색-창작’과정 중심으로 개별 노래심리치료를 진행 했을 때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자아개념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알아보고자 수집한 양적 자료는 성신자아개념 척도의 사전 · 사후의 점수비교로 변화를 기록하였다. 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각 회기마다 녹취하였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이를 언어적인 반응 분석과 음악적인 반응 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자아 존중감, 정서 안정성, 문제해결 능력’의 성신자아개념 척도 하위영역의 세부문항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기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자신감과 관련 된 반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정서 안정성’은 긴장감, 불안감, 우울감, 예민하게 반응 하는 대상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은 프로그램 중 나타나는 대상자의 일처리 능력, 판단력, 추진력에 관련 된 반응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5.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에서의 사용된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최미환(2004)의 PEC모델과 윤경란(1999)의 '자아개념 훈련 프로그램'의 관계형성, 자기탐색, 자기발견, 자기이해 및 존중이라는 과정에 기초하여 대상자들이 자신의 자아를 탐색, 발견, 이해 및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목적에 따라 활동을 구성하였다.

각 단계별 목표와 회기별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각 단계별 목표 및 회기별 프로그램의 주요활동

.

치료 단계		회기	목 표	주요 활동
준비 단계	관계 형성	1	· 대상자와 치료사와의 관계형성 ·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 찾기	· 노래 감상 · 노래 분석 · 노래 부르기
	자기 탐색	2		
		3		
탐색 단계	자기 발견	4	· '노래-나'의 관계를 형성 · 노래 인생 그래프를 통해 '나'를 발견하기 · 대상자의 문제 파악	· 노래 감상 · 노래 분석 · 노래 변주 · 노래 부르기
		5		
		6		
		7		
		8		
창작 단계	자기 이해 및 존중	9	· 자기 탐색과 발견 단계에서 발견한 자신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해 작사하고 창작곡을 만들기 · 창작곡 분석	· 노래 만들기 · 노래 분석 · 노래 부르기
		10		
		11		
		12		
		13		
		14		

(1) 준비 단계 (세션 1 ~ 세션 3): 관계형성 및 자기 탐색

준비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치료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기 탐색에 중점을 둔다. 특히 치료대상자가 대상자 자신과 관련된 노래를 찾고(최미환, 2004), 감상, 회상, 노래 부르기 등의 작업형태로 진행 하고 기존 노래를 분석한다. 이때 표면적인 수준의 분석을 시행 하는데, 준비 단계에서는 노래의 전반적인 정서 파악하기, 노래를 색이나 날씨에 비유하기, 가사 속 등장인물 분석하기, 가수의 목소리나 강조하는 부분 찾기 등이 적용 될 수 있다(정현주 외, 2006). 본 연구에서 준비단계에서는 대상자와 치료사 간에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 하며 대상자들이 편안하고 안정 된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를 발견하고 감상하고 가사를 분석,· 노래 부르기를 자기 탐색을 위한 준비과정을 가진다.

(2) 탐색 단계 (세션 4 ~ 세션 8): '노래-나'의 관계를 형성하고 '나'를 발견하기

탐색 단계에서는 노래 자서전과 노래 인생 그래프를 통해 대상자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나'를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를 통해 발견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이 단계에서 심화된 가사를 분석 하고, 대상자가 노래-나'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자신에게 나타나는 쟁점과 핵심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최미환, 2006). 개사, 작곡, 노래 변주, 멜로디 창작과 같은 다양한 표현방법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과거(아동기, 청소년기), 현재(성인기), 미래의 노래 인생 그래프를 만들어 노래와 자신과의 연관성을 찾도록 돕는다. 또한 노래 감상, 가사와 멜로디 분석,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자아 존중감, 정서 안정성, 문제 해결능력과 관련된 자신의 문

제점을 발견하고 파악하며 직면하도록 한다.

(3) 창작 단계 (세션 9 ~ 세션 14): 자신을 이해, 문제 해결

창작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준비 단계와 탐색 단계에서 발견한 '나'를 돌아 볼 수 있는 단계이다. 대상자는 먼저 기억에 남는 주제를 선정 해 자신의 이야기 중심으로 작사 하고 선율을 입혀 곡을 음악 결과물을 만들도록 한다. 최미환(2004)은 창작단계에서 대상자가 창작과 연주 후에는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분석하고 노래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감정, 문제, 갈등, 해결방법 등의 논의 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발견한 자신의 문제와 자신에게 영향을 준 대상과의 해결 방안, 앞으로의 다짐'의 주제로 대상자가 노래 제목과 가사를 정하고 작곡을 하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2)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사14회기의 노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각 단계의 목표와 활동, 치료적 논거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노래심리치료의 회기별 구성

단계	회기	목 표	활 동	논 거
준비	1		'만남, 출발'이라는 주제를 제시, 노래를 부르고	만남과 시작의 의미의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는 치료사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음악치료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며, 노래 「만남 」

단계		·치료사와대상자의 긍정적 관계형성하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 찾기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며 의미 있는 단어를 찾아본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날을..” 가사는 대상자와 음악 대상자와 치료사의 만남의 의미를 더한다.
	2		4가지 주제를 담은 곡을 통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노래하고 색깔, 날씨, 이미지로 표현해 본다.	‘나, 우리, 사랑, 자연’라는 일반적인 주제의 노래는 대상자의 내면적인 부분을 다양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노래에 대해 색깔, 날씨, 이미지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 나타냄으로써 대상자의 생각을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특히「나는 문제없어」“많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아름다운 세상」“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름다운 세상” 「사랑합니다」“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 지라도”, 「 모닥불」 “모닥불 피워 높고” 가사들은 자신의 개념들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자신의 노래를 찾고 노래가 주는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자신과 닮은 점 혹은 다른 점을 파악해 본다.	‘나의 노래’ 혹은 ‘주제가’를 찾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모습과 노랫말의 닮은 점과 다른 점 파악한다. 특히 노래 속에서 나타는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김광석의「나의노래」중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가사는 평소 자신에게 즐겁게 하거나 희망을 줬 던 의미 있는 노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탐색 단계	4	·노래인생 그래프를 통해 ‘나’를 발견하기 · 노래와 나의 관계 형성하기	노래 인생그래프를 통해 당시 자신에게 의미있던 노래제목을 기록한다. 특히 아동기를 회상할 수 있는 노래를 듣고 가사를 분석하고 적용해 본다.	아동기 때 자신이 즐겨 들었던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분석하고 자신의 모습 노래를 통해 회상한다. 특히「개구리 소년」“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와 「화가」“맑게 개인 공원에서... 아주 예쁘게 그리고 있었어요. 맑고 푸른 동심을” 가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타인, 타인이 생각하는 자신을 대입하며 자아개념과 관련 된 어린 시절 자신의 문제를 탐색을 돕는다.
	5	· 대상자 문제점 파악하기	직전 회기에서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인 주제로 정해 깊이 있게 자신의	대상자는 아동기 자아 탐색 중 자신이 정한 주제를 통하여 선호하는 노래를 선정한 후 노래를 듣고 가사내용 분석한다. 특히 자신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 대상에 대해 자신이 가 졌 던 감정과 문제 있는 심리 상황을

			문제를 바라본다.	직면할 수 있도록 하고 표현 및 표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청소년기를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감상 하고 노래를 듣고 생각나는 대상에게 짧은 글 형식의 글을 적은 후 자신의 노래에 맞춰 읽거나 노래로 불러 본다.	대상자가 지난 시절(청소년기)을 떠올리고 부정적 혹은 긍정적 감정을 통해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표출, 지지받은 감정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창시절을 떠올리는 노래를 대상자가 정하고 그 당시의 자신과 주변 친구들에 대한 것을 회상하게 하며 그 당시의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 던 내면의 갈등을 관찰한다. 특히 '문제 해결능력'과 관련 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돕는다.
	7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관련 된 주제를 정하고 관련된 노래를 감상 및 부르며 자신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고 가사를 바꿔본다.	현재 자신의 내재된 다양한 감정을 '자아 존중감, 정서 안정감, 문제 해결능력' 중심의 자아개념을 평가하고 관심사 등을 발견 할 수 있으며, 노래 속에서 보이는 주인공의 모습 중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하고, 노래 속 주인공의 좋은 점을 중점으로 찾아보고 가사 바꾸기를 해 봄으로써 노래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 어 나아갈 수 있다.
	8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에 대한 주제의 짧은 가사를 만들어 본다.	탐색 마지막 단계로 그 동안 자신의 탐색하고 발견 한 대상자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자아 존중감, 정서 안정감, 문제 해결능력'이 포함된 자아개념 중심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점은 긍정적 지지를 하고 단점은 대상자가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돕는다.
창작 단계	9	· 자기 탐색과 발견 단계에서 기억에 남는 주제로 작사하고 창작곡 만들기	'나'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며 그동안 자신이 기억하는 모습과 발견한 모습을 중심으로 가사를 만들어 본다.	대상자가 그동안 탐색 및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변화를 경험한 긍정적 자아상을 중점으로 노래가사로 표현을 하며 자신을 재발견 하고,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또 가사 만들기는 자신의 문제를 외면화 할 수 있도록 한다.
	10		직전 회기에서 만든 가사를 바	멜로디 만들기(작곡)는 그동안 접하지 못한 상황을 해결할 있는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탕으로 멜로디를 완성해 본다.	결과물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창작곡의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며 자아개념 중에서 문제 해결능력과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11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왜 이러한 가사를 썼는지에 대해 토의 한다.	대상자는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긴장감을 완화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노래 가사를 통한 고백은 상대방과의 자신의 당시 갈등을 해소 및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자아개념을 높인다.
	12	· 창작곡 완성하고 가사, 멜로디 분석하기	직전 회기에서 만든 가사를 바탕으로 멜로디를 완성해 보고 강조 하고 싶은 멜로디 부분을 형성 해 본다.	멜로디 창작은 대상자가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그동안 회피했던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창작곡의 결과물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난 시간을 다시 회상할 수 있으며 가사를 멜로디로 표현하며 가사 만들기와는 다른 의미를 추구 할 수 있다.
	13		자신이 이루고 싶고 미래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인 가사로 표현 한다.	창작 단계 중 마지막 가사 만들기 시간으로 대상자는 자신이 장애로 부딪쳤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회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다짐들을 노래 가사로 표현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떠올리고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14		직전 회기에서 만든 가사를 바탕으로 멜로디를 완성해 보고 지금까지 만든 노래를 불러 보고 소감을 말 해 본다.	마지막 창작 단계로 대상자는 직전 회기의 만든 가사의 멜로디 완성 작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다짐을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하고 그동안의 창작곡을 다시 한 번 불러 봄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인하고 자아개념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

3) 대상자별 프로그램 구성

(1) 대상자 A

준비단계(1회기~3회기)는 치료사와 긍정적 관계 형성하기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 찾기를 목표로 활동이 진행 된다. 1회기는 만남과 출발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 되며 코요테의「만남」과 김동률의「출발」이라는 곡을 사용 하며 대상자와 치료사 간의 자연스러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2회기와 3회기는 는 '나, 우리, 사랑, 자연'의 폭넓고 일상적인 주제의 노래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를 찾고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탐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특히 대상자A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표현 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 찾기를 위한 준비단계로 진행한다.

탐색단계(4회기~8회기)는 대상자A가 자신의 노래 인생 그래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개념과 관련 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대상자A는 과거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 현재, 미래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그 당시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노래를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6회기는 대상자A의 부정적 자아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학창시절은 안재욱의「친구」노래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탐색 하도록 한다. 또한「친구」노래 중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아래 있잖니' 가사에서는 A가 학창시절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 당한 경험과는 상반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기대감을 줄 수 있다. 대상자A는 자아개념 중에서도 자아 존중감이 가장 낮기 때문에 자신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되며 긍정적인 경험을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인식시키도록 한다.

창작단계(9회기~14회기)는 이 전 탐색단계에서 발견하고 탐색한 자신과 관련 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체적인 주제로 선정하고 창작곡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또한 자신이 만든 창작곡의 가사와 멜로디 분석하며 변화된 자신이 자아개념을 인식하고 해결점을 스스로 찾도록 한다. 아래 <표-6>은 대상자A에게 적용 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

<표-6> 대상자A의 노래심리치료프로그램 구성

단계	회기	목 표	노래목록	치료적 논거
준비 단계	1 ~ 3	·치료사와 대상자의 긍정적 관계형성 하기 ·의미있는 노래 찾기	코요테「만남」 김동률「출발」 박인희「모닥불」 노홍철 「나는문제없어」 유리상자 「아름다운세상」 이재훈 「사랑합니다」 버즈 「겁쟁이」	· 대상자A와 치료사는 '만남, 출발'의 주제를 통해서 서로간의 공감대를 이끌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다. · 폭넓고 일상적인 주제의 노래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A가 자신에게 의미있는 노래를 찾고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탐색을 준비할 수 있다.
탐색 단계	4 ~ 8	·노래인생 그래프를 통해 '나'를 발견하기 · 노래와 나의관계 형성 · 대상자 문제점 파악하기	만화주제가 「개구리왕눈이」 동요「화가」 안재욱「친구」 김종국 「어제보다 오늘 더」 이한철 「슈퍼스타」	· 대상자A가 자신의 노래 인생 그래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개념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친구'노래 중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아래 있잖니' 가사에서는 대상자A가 학창시절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 당한 경험과는 상반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자신의 문제를 알고 직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슈퍼스타'노래는 대상자A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랫말 가사가 중심이 되며 간접적인 긍정적 경험을 노래를 통해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노래

				주인공과 자신의 같은 점 혹은 다른 점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창작 단계	9 ~ 14	· '나'에 관한 창작곡 만들기 · 창작곡 가사와 멜로디 분석하기	창작곡 「행복」 「속상해했던 아빠」 「눈부신 미래」	· 대상자A의 창작곡은 '나'와 관련 된 주제를 중심으로 만들고 이는 자아개념 하위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의식적인 활동이다. · 창작곡의 가사와 멜로디 분석하며 변화된 자신이 낮은 자아 존중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점을 스스로 찾도록 할 수 있다.

(2) 대상자 B

준비단계(1회기~3회기)는 치료사와 긍정적 관계 형성하고 다양한 주제와 관련 된 노래를 듣고 함께 부르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 찾는 활동으로 진행 한다.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나, 우리, 사랑, 자연'의 주제와 관련 된 황규영「나는 문제없어」, 유리상자의「아름다운 세상」, 이재훈「사랑합니다」, 김연숙의「모닥불」노래는 대상자B 자신의 노래를 찾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자아개념 중 문제 해결능력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B는 문제 상황을 직면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문제와 관련 된 주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시 하도록 한다.

탐색단계(4회기~8회기)는 대상자B가 노래 인생 그래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개념 하위영역 중 문제해결 능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7회기와 8회기는 카이스트OST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김한철의 「슈퍼스타」노래를 사용하는 데 특히 노래「마음으로 그리는 세상」노래 중 '소중한건 바로 마음속에 쓰러지지 않는 용기죠. 나를 향한 믿음 그것만이 멋진 미래를 열수 있는 작은 열쇠죠' 가사와「슈퍼스타」노래 중 '너만의 살아가야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부분은 대상자B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저항하려는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특히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상반 된 노래 가사를 통해 모습을 점차 일치 시켜 가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시도 할 수 있다.

창작단계(9회기~14회기)는 대상자B가 탐색단계에서 발견한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창작곡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창작곡의 주제는 대상자B가 스스로 선정하도록 하고 가사와 멜로디 창작 활동 초반에는 과제를 부분적으로 제시하도록 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고 11회기와 12회기에서는 치료사의 개입을 줄이며 13회기부터는 치료사의 도움을 최소화 한다. 이는 문제해결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인 B가 문제점을 직면하고 스스로 해결하며 이를 통한 성공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아래 <표-7>은 대상자B에게 적용 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

<표-7> 대상자B의 노래심리치료프로그램 구성

단계	회기	목 표	노래목록	치료적 논거
준비단계	1-3	·치료사와 대상자의 긍정적 관계형성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 찾기	코요테「만남」 김동률「출발」 박인희「모닥불」 노홍철 「나는문제없어」 유리상자 「아름다운세상」 이재훈 「사랑합니다」 인순이 「거위의 꿈」	· '만남, 출발'의 주제는 대상자B와 치료사 간의 자연스러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자아개념 중 문제 해결능력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대상자B에게 자신의 문제와 관련 된 주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시 하여 문제 상황을 직면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탐색		· 노래 인생	만화주제가	· 카이스트OST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단계	4 - 8	그래프를 통해 '나'를 발견하기 · 노래와 나의관계 형성하기 · 대상자 문제점 파악하기	「개구리왕눈이」 동요「화가」 HOT 「우리들의 맹세」 카이스트OST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김종국 「어제보다 오늘 더」 이한철 「슈퍼스타」	노래 중 '소중한건 바로 마음속에 쓰러지지 않는 용기죠. 나를 향한 믿음 그것만이 멋진 미래를 열수 있는 작은 열쇠죠' 가사와 이한철 '슈퍼스타'노래 중 '너만의 살아가야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부분은 대상자B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저항하려는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상반 된 노래 가사를 통해 대상자B의 현재 자신의 모습과 같은 점 혹은 다른 점을 발견하며 주인공과 점차 일치 시켜 가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시도 할 수 있다.
창작 단계	9 - 14	· '나'에 관한 창작곡 만들기 · 창작곡 가사와 멜로디 분석하기	창작곡 「기쁨」 「사랑해요 아버지」 「나에게 쓰는 미래 이야기」	· 창작곡의 주제는 대상자B가 스스로 선정하도록 하고 가사와 멜로디 창작 활동 초반에는 과제를 부분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 창작곡의 노랫말은 자신이 문제 해결능력 영역에서 이 전과 달라진 부분을 노래 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노래 창작하기 활동을 통해 대상자B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11회기와 12회기에서는 창작단계의 초기 9회기와 10회기 보다 치료사의 개입을 줄이며 13회기부터는 치료사의 도움을 최소화 한다. 이는 문제해결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인 B가 문제점을 직면하고 스스로 해결하며 이를 통한 성공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대상자 C

준비단계(1회기~3회기)는 치료사와 긍정적 관계 형성하고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노래를 통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를 찾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1회

기와 다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코요테「만남」노래로 접근한다. 하지만 대상자C의 연령과 음악적 선호도를 고려 해 김동률「출발」노래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C에게「만남」노래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는 불안하고 낯선 환경에 두려워하는 마음 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2회기는 여러 가지 주제의 노래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을과 관계 맺고 있는 노래를 탐색하도록 하고 3회기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를 발견하도록 한다.

탐색단계(4회기~8회기)에서는 대상자C의 노래 인생 그래프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발견한다. 특히 자아개념과 관련 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탐색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대상자C는 자신의 현재 모습과 주변사람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예민하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6회기는 보통 빠르기의 동형진행의 특징을 가지며 C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김국환의「타타타」노래가 사용 된다. 인생 달관의 경지에 이른다는 뜻을 가진 제목과 노래 중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가사는 C의 불안한 심리 상태의 문제점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창작단계(9회기~14회기)는 대상자C가 탐색단계에서 발견한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통한 다짐과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자신의 창작곡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낸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자C의 내면 참 자아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기 위해 경건하고 호전적인 느낌을 주는 D장조의 가사가 없는 피아노 연주곡으로 가스펠「나 무엇과도 주님을」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 특히 C가 음악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박복적인 가사와 멜로디를 사용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긴장된 관계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 <표-8>은 대상자C에게 적용 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

<표-8> 대상자C의 노래심리치료프로그램 구성

단계	회기	목 표	노래목록	치료적 논거
준비단계	1-3	·치료사와 대상자의 긍정적 관계형성하기 ·의미 있는 노래 찾기	코요테「만남」] 박인희「모닥불」 노홍철 「나는문제없어」 유리상자 「아름다운세상」 이재훈 「사랑합니다」 안치환 「사랑이 꽃 보다 아름다워」	·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대상자C에게 '만남'노래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는 불안하고 낯선 환경에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탐색단계	4-8	·노래인생 그래프를 통해 '나'를 발견하기 · 노래와 나의관계 형성하기 · 대상자 문제점 파악하기	양희은 「세노야세노야」 혜은이 「열정」 김국환 「타타타」 김종국 「어제보다 오늘 더」 이한철 「슈퍼스타」	· 대상자C의 불안한 정서를 보다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보통 빠르기의 동형진행의 특징을 가진 '타타타' 노래가 사용 된다. 이 노래는 인생 달관의 경지에 이른다는 뜻을 가진 제목과 노래 중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가사는 C의 불안한 심리 상태의 문제점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스스로 적절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어제보다 오늘 더'의 주제인 '사랑'을 통해서 대상자C의 예민하고 불안한 정서의 원인이 된 가족 문제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창작단계		· '나'에 관한 창작곡 만들기	가스펠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창작곡	· 대상자C가 가사를 만들 때 경건하고 호전적인 느낌을 주는 D장조의 가사가 없는 피아노 연주곡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9 ㅣ 14	· 창작곡 가사와 멜로디 분석하기	「나에게」 「인연」 「작은 천사」	C의 내면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불안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다. · 창작곡에서 박복적인 가사와 멜로디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는 대상자C가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긴장된 관계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Ⅳ. 연구 결과

1.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사전 · 사후 자아개념 결과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에게 노래 심리치료를 실시 전 후의 자아개념 점수 변화는 <표-9>과 같다.

<표-9> 대상자별 총 자아개념점수 사전 사후 비교

	사 전	사 후
대상자 A	45	52.6
대상자 B	44.8	50.8
대상자 C	46	50.4

노래 심리치료 시행 전 대상자들의 자아개념 점수는 45점, 44.8점, 46점을 나타냈고, 노래 심리치료 시행 후에는 52.6점, 50.8점, 50.4점으로 각각 점수 변화를 보였다. 먼저 대상자A는 자아개념점수가 45점에서 52.6점으로 '중'에서 '중상'으로 7.6점의 가장 높은 변화폭을 보였고, 대상자B의 자아개념점수는 44.8점에서 50.8점으로 6점 가량 증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자C는 자아개념점수가 46점에서 50.4로 3.6점 향상을 보였고 점수 변화폭은 가장 적었다. 본 검사를 통해 대상자 A, B, C 모두 총 자아개념 검사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평균적으로 약 5.6점 향상되었다.

1) 대상자 A

대상자 A의 자아개념 하위 영역별 점수 변화는 다음 <표-10>와 같다.

<표-10> 대상자A의 자아개념 하위 영역별 사전 · 사후 비교

	사 전	사 후
자아 존중감	45	58
정서 안정성	51	54
문제해결능력	49	56

노래 심리 치료 시행 후, 대상자 A의 자아개념 하위영역별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 존중감은 사전점수 45점(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58점(비교적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함)으로 13점의 가장 많이 변화를 보였으며, 정서 안정성은 사전점수 51점(보통정도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정서상태가 불안정해 해짐)에서 사후점수는 54점으로 3점 가량증가 하였지만 사전 점수와 같은 등급에 포함된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사전 점수 49점(어느 정도는 일처리를 해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왕좌왕함)에서 사후 점수 56점(일처리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침착하게 잘 대처함)으로 7점의 증가로 보아 자아 존중감에서 점수가 가능 높은 변화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2) 대상자 B

대상자 B의 자아개념 하위 영역별 점수 변화는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대상자B의 자아개념 하위 영역별 사전 · 사후 비교

	사전	사후
자아 존중감	47	56
정서 안정성	40	43
문제해결능력	39	46

노래 심리 치료 시행 후 대상자B의 자아개념 하위영역별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 존중감은 사전 점수 47점(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후 점수 56점(비교적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함)으로 9점의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고, 정서 안정성에서는 사전 점수 40점(정서가 비교적 불안정한 편이며 일이나 대인관계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민감해짐)에서 사후점수 43점(보통정도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정서 상태가 불안정해 해짐)으로 3점 소폭 향상을 보였다. 또한 문제 해결능력은 사전 점수 39점(일을 겁내며 되도록 피하려 하고 의존심이 있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며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함)에서 사후점수 46점(어느 정도는 일처리를 해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왕좌왕함)으로 7점의 점수 증가를 보였으며 정서 안정성의 점수의 높은 변화폭을 보였다.

3) 대상자 C

대상자 C의 자아개념 하위 영역별 점수 변화는 다음 <표-12>과 같다.

<표-12> 대상자C의 자아개념 하위 영역별 사전 · 사후 비교

	사전	사후
자아 존중감	54	59
정서 안정성	32	45
문제해결능력	50	53

노래 심리 치료 시행 후 대상자C의 자아개념 하위영역별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 존중감은 사전점수가 54점(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후점수 59점(비교적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함)으로 5점의 점수 변화를 보였고, 정서 안정성에서는 사전점수 32점(늘 불안하고 긴장해 있으며, 열등의식이 많고 자주 우울해짐)에서 사후점수 45점(보통정도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정서상태가 불안정해 해짐)으로 13점 증가 하며 다른 영역보다 가장 큰 점수 변화를 보였다. 또한 문제 해결능력은 사전점수 50점(어느 정도는 일처리를 해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왕좌왕함)에서 53점으로 사전 점수와 같은 등급에 포함되는 3점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고, 정서적 안정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 변화를 보였다.

2. 회기별 대상자들의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1) 대상자 A

대상자A는 노래심리치료 준비단계(1회기~3회기)에서 낯선 환경과 치료사에게 자기를 표현하기 어려워했다. 자기 비하가 심한 편이었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으며 미래대한 생각도 부정적이었다. 1회기에는 치료사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에 결정을 잘 못하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생각을 필요로 하는 질문과 과제에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탐색 단계(4회기~8회기)에서는 자신의 성공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하며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였다. 5회기는 치료사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고 6회기는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의 떨림이 심하고 높낮이가 자주 바뀌는 등 불안감을 여전히 보였다. 창작단계(9회기~14회기)에서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자신이 만든 노래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다. 준비단계에서는 특히 자기 비하적인 느낌을 말했지만 창작단계로 진행될수록 가사 속에서 보이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표현했다.

(1) '준비 단계(1회기~3회기)' 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표-13> 대상자A의 '준비단계'에서 언어적 반응 · 음악적 반응분석

영 역	분석	
	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자아 존중감	▸ 1회기, 치료사가 같이 노래 부르자고 제안 하자 “안 부르면 안 돼요? 제가 노래를 못해서요..” 라고 말함. ▸ 2회기,「아름다운 세상」을 듣고 관련 된 경험을 묻자 “전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늘 왕따 이었어요. 싫어하던데요” 라며 자신에 대한 낮은 존재 인식을 보임.	▸ 2회기,「나는 문제없어」노래가 주는 느낌 색깔로 표현하기에서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와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 마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부분에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tranquillo(고요한) 느낌으로 자신의 평소 목소리의 p(여리게)보다도 작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pp(매우 여리게)로 노래하며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표현함.
정서 안정성	▸ 3회기, 「거위의 꿈」을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했을 때 “저 그림 못 그리는데 꼭 그려야 해요?” 말을 3 번 반복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한 모습으로 반영됨.	▸ 2회기,「사랑 합니다」노래를 부르는 목소리의 떨림이 줄어들었고, p(여리게)와 pp(매우 여리게)를 반복하며 작은 소리로 불렀으나, 안정적으로 노래함.
문제해결 능력	▸ 1회기, 노래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대답을 하기까지 30초가량 걸리며 “아니요” “딱히요 모르겠어요.”의 회피 형 대답으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못함. ▸ 1회기, 치료사가 질문하면 “네? 머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주세요” 혹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를 보임.	▸ 3회기, 김광석의「나의 노래」를 듣고 난 후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느낌’의 가사라고 하며 머뭇거리지 않고 스타카토로 한 음 씩 끊어서 노래함하며 머뭇거리지 않으며 유능한 표현을 보임 .

1회기 A는 치료사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만 대답을 하기까지 정체 시간이 30초 이상이 되었다. 예를 들면 치료사의 질문이 “노래를 듣고 기억나는 가사가 있어요?”, “소중한 만남을 경험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의 질문이었으며, “모르겠어요.” “딱히....” 혹은 “아니요” 등의 회피형 대답을 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 이외에는 다른 말은 거의 하지 않다. 「만남」 노래를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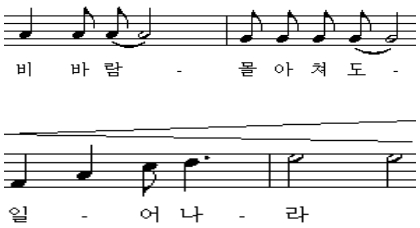
상 후 들어 본 것 같다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으나 가사를 읽어 보라고 했을 때는 부담을 느꼈는지 망설이며 “제가요? 제가 읽어요?” 라고 말하며 대답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떨어졌다. 또한 A는 자신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노래를 부르지 못 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 본 회기에서는 대상자와 치료사와의 신뢰감형성에 중점을 뒀고 자아개념과 관련 된 음악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2 회기 A는 「나는 문제없어」노래가 주는 느낌 색깔로 표현하기에서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와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 마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부분을 검정색으로 표현하며 트란퀼로(고요한) 느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pp(매우 여리게)로 노래했고, 「아름다운 세상」을 듣고 관련 된 경험을 묻자 “전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늘 왕따 이었어요. 싫어하던데요” 라며 말하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 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말들을 했다. 그러나「사랑합니다」노래를 부르는 목소리의 떨림이 1회기 보다 줄어들었고 p(여리게)와 pp(매우 여리게)를 반복하며 불렀으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음악적 반응을 보였다.

3회기 A는 1회기와 2회기에서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 김광석의「나의 노래」를 듣고 난 후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느낌’의 가사라고 하며 머뭇거리는 시간이 10초 이하로 줄었으며 스타카토로 한 음씩 끊어서 노래하며 표현능력이 좋았다. 「거위의 꿈」자신에게 가장 의미있는 노래를 이용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저 그림 못 그리는데 꼭 그려야 해요?” 말을 3번 반복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한 모습으로 반영되었으며 정서적 안정 영역에서 언어적 반응과 음악적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2) ‘탐색 단계(4회기~8회기)’ 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표-14> 대상자A의 ‘탐색단계’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영 역	분석	
	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자아 존중감	▸ 4회기, 동요「화가」 주인공이 되어 그림을 그리는 상상을 유도하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묻자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지나가는 애들이 비웃을 것 같아요”라고 자기 비판적인 말을 함. ▸ 4회기, 개구리 소년 왕눈이 가사 중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부분을 분석하며 “제가 컴퓨터 자격증을 4번을 떨어지고 5번 만에 붙었거든요..” 라며 자신의 성공 경험을 이야기 하며 의미 있다고 함.	▸ 4회기, 개구리 소년 왕눈이 가사 중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부분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하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자신 있게 부름. 예)  ▸ 8회기,「슈퍼스타」를 감상하고 A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작사를 했는데, ‘미래’ ‘더 밝고, 씩씩하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여 스스로 힘이 되는 가사를 이용해 노래를 완성함.
정서 안정성	▸ 4회기, “이 노래 알아요. 어린 시절로 돌아 간 것 같아요. 느낌이 편안하네요.”라고 하며 안정 된 감정 상태를 보임. ▸ 6회기,「친구」노래를 감상 한 후 자신을 도와준 친구 이야기를 했고 이에 치료사가 친구에 대한 생각을 묻자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얘는 선생님이 시켜서 억지로 했어요” 라	▸ 6회기, 안재욱 「친구」노래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따라 부르기도 하고 손으로 박자를 맞추며 노래에 집중했으며 산만하지 않고 안정된 감상 자세를 보임.

	고 하며 부정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보임. ▸ 7회기,「어제 보다 오늘 더」노래 가사에 대해 희망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라고 하며 노래가 만족스럽다고 말함.	
문제해결 능력	▸ 6회기, 지금 생각나는 친구에 대해 말해 보자고 했을 때 꽤 긴 시간을 고민하며 한 친구의 이름을 말함. 충분히 생각하면서도 결정을 잘 못 내리는 모습을 보임.	▸ 5회기, 부모님과 관련 된 노래 중 자신이 모른다고 한「내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며 낯선 노래를 회피함. ▸ 6회기, 「친구」노래 중 자신이 만든 짧은 가사를 어디에 넣어 불러야 하는지 몰라 몇 번 박자를 놓쳤지만 끝까지 부름.

4회기 A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아개념과 관련 된 긍정적 언어 반응을 2번 보였다. 「개구리 소년 왕눈이」 가사 중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부분을 분석하며 "제가 컴퓨터 자격증을 4번을 떨어지고 5번 만에 붙었거든요" 라며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만족감을 보이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했다. 또한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부분을 점점 크게 부르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어린 시절 당시 노래를 듣고 "이 노래 알아요. 어린 시절로 돌아 간 것 같아요. 듣기 편해요"라고 하며 안정 된 감정 상태를 보였으나 동요「화가」의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사람의 반응에 대해서는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지나가는 애들이 비웃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즉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A는 정서 안정성에서는 변화를 보였지만, 자아 존중감이 여전히 낮았고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된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5회기 A는 부모님과 관련 된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구두」노래를 통해 어린 시절 부모님 모습을 회상했다. A는 사전 인터뷰 때와 같이 부모

님에 대한 질문에 여전히 불편한 모습을 보였고 잊고 싶은 기억이라고 말했다. 특히 두 곡 중 자신이 잘 모르는 노래라고 말 한 「내 어머니」는 부르는 시늉만 하고 거의 부르지 않았다. A는 '부모님' 주제에 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노래를 부르려고 시도를 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6회기 A는 지난시간의 여운이 남았는지 그 때 어려운 주제였다며 인사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먼저「친구」노래를 감상 한 후 자신을 도와준 친구에 관한 말을 했다. 치료사가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묻자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얘는 선생님이 시켜서 억지로 했어요" 라고 하며 부정적이고 예민한 언어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친구」노래를 감상하면서 중간에 따라 부르기도 하고 손으로 소리 내며 박자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며 좀 전과는 다르게 산만하지 않고 노래에 집중하며 편안하고 안정된 감상 자세를 보였다. A는 언어적 반응과 음악적 반응에 있어 상반된 정서 상태와 감정의 기복을 보였다. A는 친구에게 짧은 편지를 썼고, 「친구」노래 말 중에 자유롭게 노래로 표현 했는데 처음 시작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며 몇 번 박자를 놓쳤지만 끝까지 노래를 불렀다. 다음 <가사 1>은 A가 가사 형식으로 만든 친구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글이다.

<가사 1>

친구

- 대상자 A -

점심시간에 식판은 갖다 주던 너
짜증이 날 수 도 있었는데
묵묵히 해주던 너
정말 고마워

7회기 A는 치료사가 지난 5회기 때 '5초 이상 상대방 눈 응시하기' 약속을 기억하고 실행 하고 있고, 이 전 회기보다 노래를 감상하고 부르는 태도가 좋아졌다. A는「어제 보다 오늘 더」노래 가사에 대해 희망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라고 하며 노래가 만족스럽다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언어적 반응은 자아 안정성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며 다소 안정된 정서 상태로 해석된다.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자아 존중감, 정서 안정성,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음악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8회기 A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꿈과 지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점검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한철의 '슈퍼스타'노래를 통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했고 준비 단계에 자존감이 낮은 반응과 다르게 A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면 '미래' '더 밝고, 씩씩하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다음 <가사 2>를 표현하였다.

<가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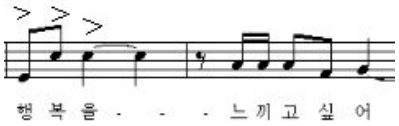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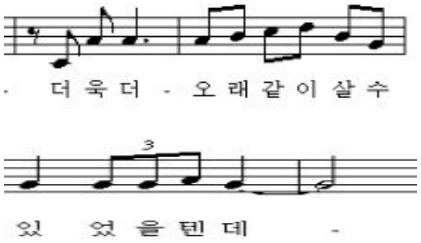
슈퍼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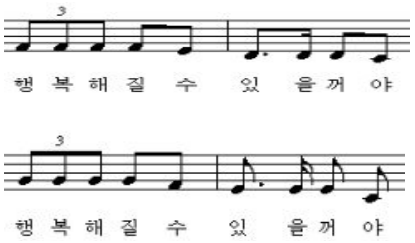
- 대상자 A -

지금은 어려운 세상이지만 미래에는 눈부신 날들이 가득할 거야
미래를 위해서 파이팅!
몸이 상하고 마음이 지치더라도 좀 더 밝고 씩씩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3) ‘창작 단계(9회기~14회기)’ 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표-15> 대상자A의 ‘창작단계’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영 역	분석	
	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자아 존중감	▸ 9회기, A는 “지금까지요. 그러니깐 몸이 불편해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적은 것 ‘그러나 나중에 행복을 느끼고 싶어’처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짐. ▸ 13회기, 창작곡의 주제선정의 이유를 묻자 “이렇게 되고 싶어서 쓴 거예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임. ▸ 14회기,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는 “전 이런 거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하고나니 놀랍네요. 제가요.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라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보임.	▸ 10회기, 「행복」 창작곡을 부를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고음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하며 고음으로 강조하며 자신감 있게 노래를 표현함. 예)  ▸ 10회기, 치료사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사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부분은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노래함. 예) 「속상 했 던 아빠」중 A가 자의적으로 강조해서 노래 부른 부분 
정서 안정성	▸ 12회기, A는「속상 했 던 아빠」라는 노래를 부른 후, A는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또 나도 사랑받는 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라	▸ 14회기, A는「눈부신 미래」노래 가사 중에서 ‘행복해 질 수 있을 거야.’ 부분이 좋다고 하며 2번 멜로디를 반복했으며 Comodo(평온하게)로 일정한 목소리 패턴으로 안정감 있게

	고 아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던 준비 단계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감정의 기복을 보이지 않고 안정적인 정서 언어적 반응을 보임.	노래함. 예) 
문제해결 능력	▸ 9회기, A는 자신이 긴 가사를 처음 쓴다고 하며 “부담 되네요. 그래도 해야 잖아요.”라고 말하며 조금 망설이더니 금세 제목을 정하고 가사를 써내려가며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음. ▸ 10회기, A는 “정말 작곡해야 돼요?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회피하지 않고 치료사에게 도움을 청하며 과제를 해결하려 노력함. ▸ 11회기, A는 자신이 완성한 「속상 했 던 아버지」가사를 읽으며 “쑥스럽네요” 가사를 좀 고쳐야 겠어요.”라고 말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세 2번 가사를 수정하고 다시 완성하였고, 망설이는 모습 보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	▸ 12회, A는 멜로디를 창작할 때에 치료사에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양한 멜로디 패턴을 구사하려 반복해서 노래함.

9회기는 가사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을 위한 창작의 단계이다. ‘행복’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가사를 만들었다. A는 자신이 몸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슬픔과 분노 외로움’를 느꼈으며 그런 지난 시간을 반성했고, “지금까지요.. 그러니깐 몸이 불편해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적은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 행복을 느끼고 싶어’처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

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사로 표현하며 높은 자아 존중감을 보였다. 또한 자신이 긴 가사를 처음 쓴다며 “부담 되네요. 그래도 해야 잖아요”라고 말하며 5초가량 망설인 후 제목을 정하고 <가사3>을 써내려가며 자신의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문제해결 능력의 변화를 보였다.

<가사 3>

행 복

- 대상자 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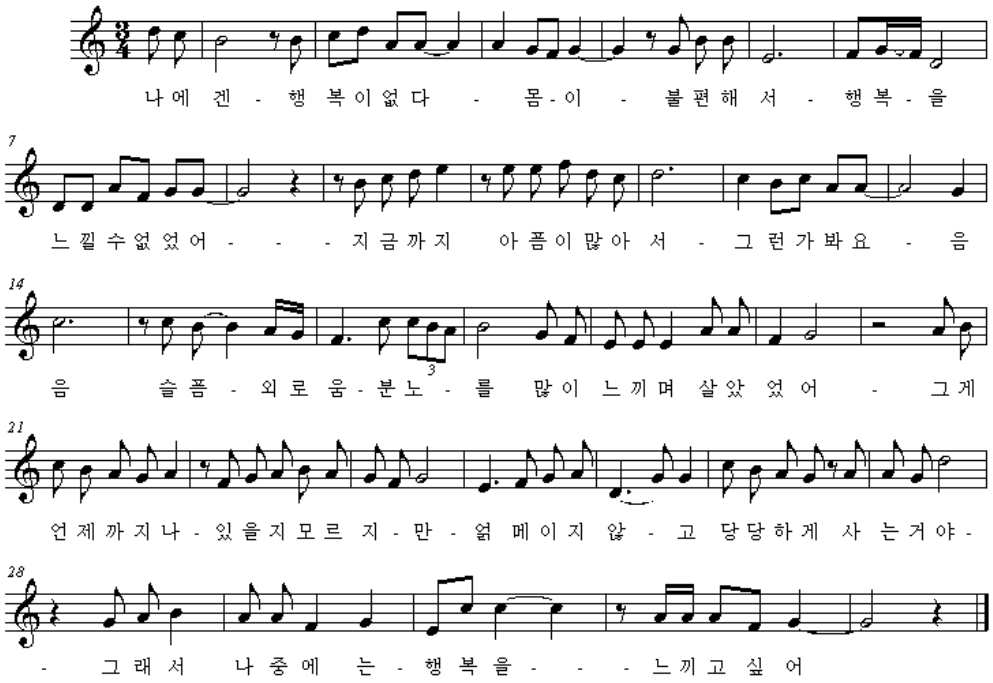
나에겐 행복이 없었다.
몸이 불편해서 행복을 느낄 수 없었어.
지금까지 아픔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슬픔과 외로움 분노를 많이 느끼며 살았었어.
그게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행복을 느끼고 싶어

10회기 A는 9회기 때 완성한 가사로 <악보1>과 같이 노래를 만들었고, 자아 존중감에 해당되는 음악적 반응이 2회 나타났다. 치료사가 먼저 언급하지 않아도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사를 찾고 그 이유를 말했으며 특히 평소 작은 자신의 목소리 보다 큰 목소리로 노래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행복」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 말하며 고음과 악센트로 강조하며 노래하며 자신에 대한 높은 자신감과 나아가 가치감을 드러내며 자아 존중감의 변화를 보였다. A는 처음 하는 작곡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정말 작곡해야 돼요?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치료사에게 도움을 청하며 적절한 과제 해결능력을 보였다.

<악보 1>

행 복

- 대상자 A -



11회기는 A가 탐색단계에서 했던 아동기와 학창시절에 만난 사람들 중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주제로 가사를 쓰기로 했고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시작 했다. 처음에는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용서 못한 아버지였지만, 「아버지의 구두」노래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하며 자신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도 못 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했다. 또한 A는 자신이 완성한 「속상 했 던 아버지」가사를 읽으며 쑥스럽다고 하며 가사를 2번 수정하였고,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고 스스로 완성하며 문제 해결 시간이 단축되었고 10회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

였다. 다음<가사 4>는 A가 아버지에 대해 쓴 가사 이다.

<가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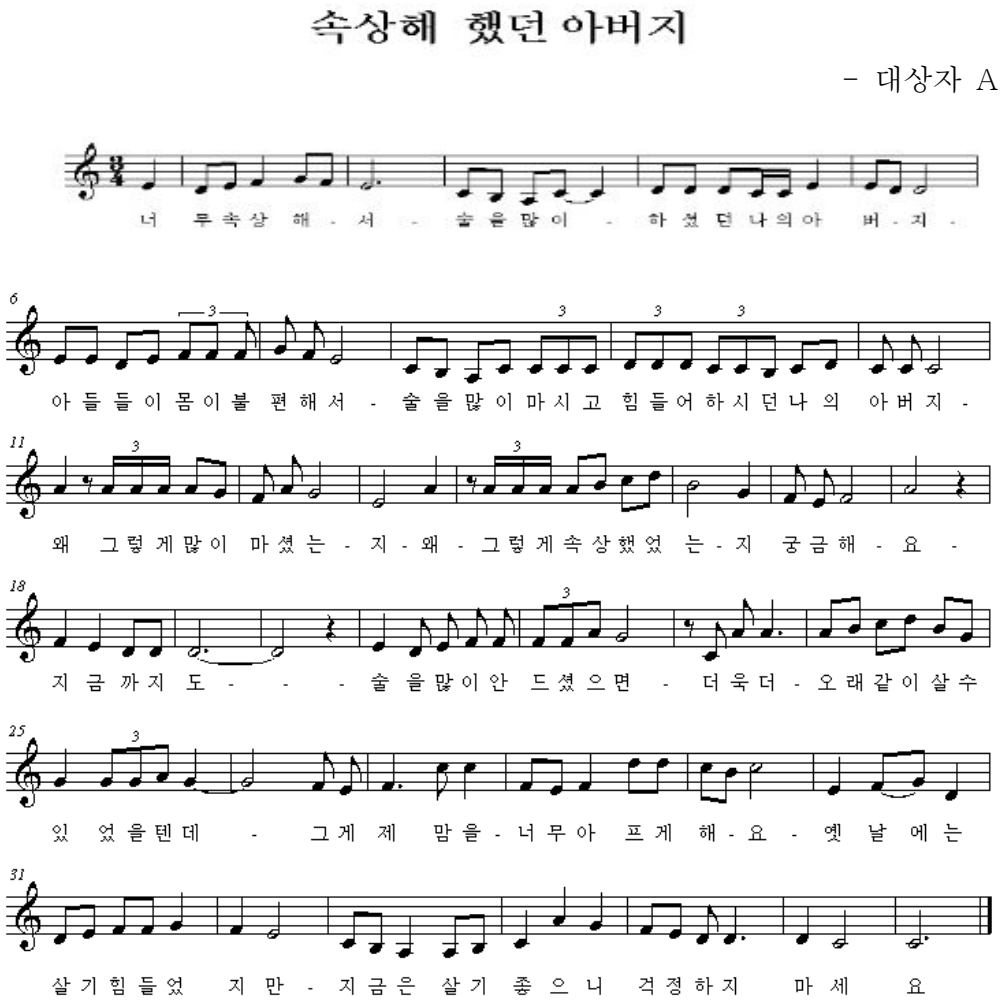
속상해 했 던 아빠

- 대상자 A -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많이 하셨던 나의 아버지
아들들이 몸이 불편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힘들어 하시던 나의 아버지
왜 그렇게 많이 마셨는지. 왜 그렇게 속상 했었는지.
궁금해요. 지금까지도…….
술을 많이 안 드셨으면 더욱더 오래 같이 살 수 있었을 텐데

12회기 A는 지난 시간에 쓴 가사를 이용해 곡을 만들었는데, 본인의 성향에 맞는 잔잔한 분위기의 곡이라고 했다. 멜로디를 만들어 가면서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으니 쑥스럽다고 말하며 가사를 2번 수정 했다. A는 멜로디를 창작할 때에 치료사에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양한 멜로디 패턴을 구사하며 스스로 제안하고 선택하는 결정 능력이 증가했다. 또한 「속상했 던 아빠」노래를 부르고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또 나도 사랑받는 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라고 아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던 준비 단계에서의 A의 모습과는 다르게 감정의 기복을 보이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였다.

<악보 2>



13회기 A에게 ‘미래’라는 단어를 제시어로 주고 주제를 정하기로 했다. ‘눈부신 미래’라는 주제를 정하고 ‘당당히 맞설 거야’부분에 지난 과거에 실망스럽고 좌절하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쓴 가사라고 했다. 특히 노래 제목은 자신이 눈부신 미래를 맞이하고 싶어서 쓴 제목이라고 하며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며 높은 자아 존중감을 드러냈다. 다음 <가사 5는> A가 쓴 「눈부신 미래」가사 이다.

<가사 5>

눈부신 미래

- 대상자 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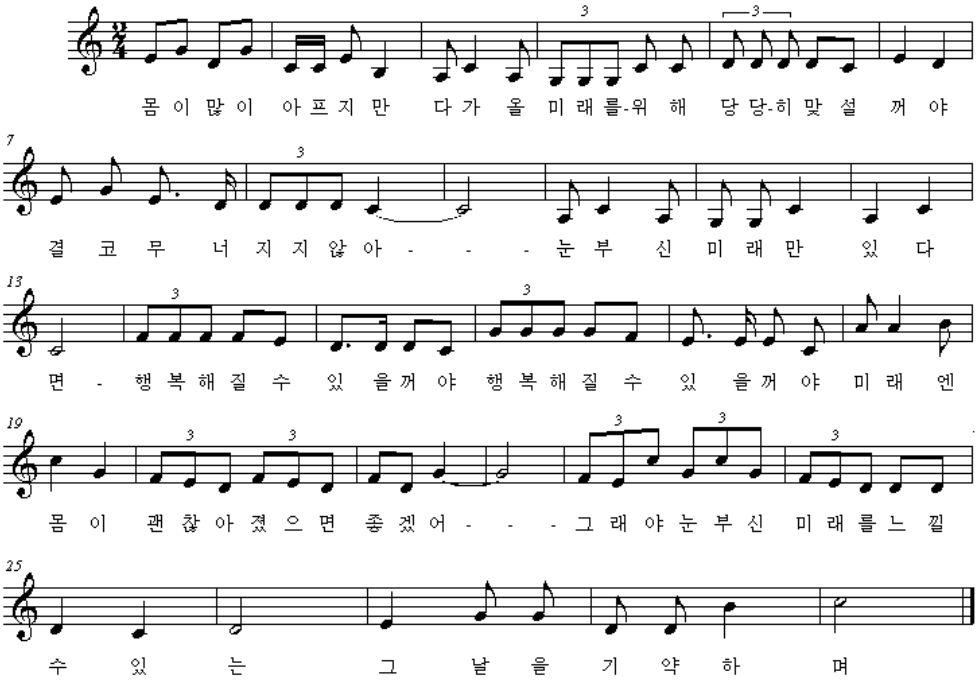
몸이 많이 아프지만 다가올 미래를 위해 당당히 맞설 거야.
결코 무너지지 않아 눈부신 미래만 있다면
행복해 질 수 있을 거야 행복해 질 수 있을 거야
미래엔 몸이 괜찮아 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눈부신 미래를 느낄 수 있어.
그날을 기약하며…….

14회기 A는 지난 시간에 쓴 '눈부신 미래' 가사에 멜로디를 정하고 기록을 하면서도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A는 자신이 강조 하고 싶은 멜로디를 '행복해 질 수 있을 거야, 행복해 질 수 있을 거야' 부분이라고 하며 4마디를 비슷한 멜로디를 정했다. 특히 A는「눈부신 미래」노래 가사 중에서 '행복해 질 수 있을 거야.' 부분이 좋다고 하며 2번 멜로디를 반복했으며 Comodo(평온하게)의 일정한 목소리 패턴으로 안정감 있게 노래했다. 또한 노래를 만든 후의 소감에는 "전 이런 거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 놀랍네요. 제가요.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이라고 하며 스스로의 성취감을 경험하고 만족하며 높은 자아 존중감을 보였다. 다음 <악보3>은 A가 완성한「눈부신 미래」노래 이다.

<악보 3>

눈부신 미래

- 대상자 A -



2) 대상자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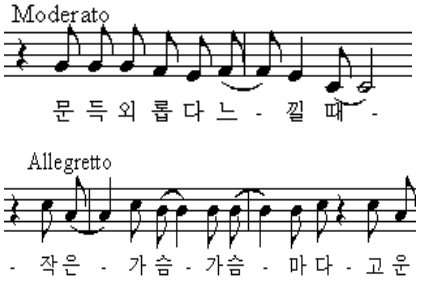
대상자B는 노래심리치료 준비단계(1단계~3단계) 치료사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며 자신이 없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낮은 자존감과 문제 상황에서의 위기 대처 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다소 낮았다. 그러나 탐색단계(4단계~8단계)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생각을 치료사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더욱 자신감 있게 반응하였다. B는 준비 단계에서 치료사의 질문에 대해 단답식 대답 혹은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 탐색단계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 의견을 반영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간단한 작사를 할 때 그러한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B는 자신의 과거의 어려웠던 점을 이야

기 하며 장애 때문에 불우한 경험을 한 경험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듯 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자신의 존재에 가치감과 존재감을 부여하였다. 창작단계(9회기~14회기)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은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가사표현에서도 나타난다. B는 프로그램 초기 고개를 숙이고 노래하거나 자신의 목소리에 만족하지 않으며 자신감이 저하된 상태로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였다. 또한 자신이 모르는 노래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였고 목소리가 안정되지 않고 불안함을 보였다. 하지만 점차 목소리의 자신감을 보이고 목소리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래를 하며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시도해 보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언어적,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1) '준비 단계(1회기~3회기)' 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표-16> 대상자B의 '준비단계'에서 언어적 반응 · 음악적 반응분석

영 역	분석	
	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자아 존중감	▸ 3회기, 「겁쟁이」를 듣고 부른 후 "이 노래랑 저랑 많이 닮았어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고요."라고 자신이 '겁쟁이'와 많이 닮았다고 표현하며 부족한 자신감을 보임. ▸ 3회기, "제 목소리 여자 같지 않아요? 병원에 있을 때 남촌에 갔는데 어떤 애가 언니 라고 하더라고요. 전화 목소리도 그래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도 싫어요."라고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음.	▸ 2회기, 「나는 문제없어」노래를 듣고 난 후 행복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하며 따라 부르다가 중간 부분 '그렇게 돌아 보 지마 여기서 끝낼 수는..... '에서 노래 부르기를 중단 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정서 안정성	▸ 1회기, B는 자신이 잘 모르는 노래가 나오거나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아무 생각 안 나요” “몰라요”라고 같은 말을 계속사용 하며 안절부절 못함. .	▸ 2회기,「아름다운 세상」노래를 듣고 따라 부를 때 목소리의 음역의 변화를 보이고 떨리며 불규칙한 빠르기로 노래함. 예) 
문제해결 능력	▸ 2회기, 치료사가 4가지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느낌을 물었을 때 “그런 거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하며 망설이고 말을 우물쭈물 함.	▸ 3회기,「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가 틀리자 노래를 멈췄고 다시 시작하였지만 망설임의 시간이 5초가량 소요 되었으며 평소 mf(조금 크게)와 mp(조금 여리게)사이의 목소리보다 작았으며 p(여리게)로 표현됨.

1회기 B는 첫 음악치료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보였고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포함하는 대답을 반복해서 사용하였다. 특히 “아무 생각 안 나요” “몰라요”라고 같은 말을 사용하며 산만하게 손과 몸을 움직이며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정서적 반응을 보였다.

2회기에 만난 B는 4가지 주제에 대한 느낌을 질문했을 때,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그런 거 이야기해야 돼요?”라는 말을 하거나 과거의 이야기를 물었을 때 “생각 안 나요” 등의 말을 하며 답변 하지 않고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B는 과거 학창시절 친구들의 놀림과 왕따의 상처로 인한 사회 적응력과 대인 공포감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인해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경험이 많아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 해나가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방어와 회피 하며 해

결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3회기 B는 오전에 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와서 많이 피곤한 상태였다. 김광석의「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노래에 집중하지 못했다. 치료사는 세션에 관련 된 여러 번의 질문을 했지만 “아무 생각 안 나요”, “피곤하고 졸려요”라고 말하며 대답을 회피하며 여전히 방어적인 답으로 반응 했고 노래를 부르다 틀리자 중간에 노래를 멈췄고 다시 시도 하지 않았다. 본 회기에서 B는 「겁쟁이」 노래가 나무 뒤에 숨은 작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 같다고 말하고 여자 목소리 같은 자신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며, 부정적인 자아상과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였다.「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가 틀리자 노래를 멈췄고 다시 시작하였지만 망설임의 시간이 5초가량 소요 되었으며 평소 mf(조금 크게)와 mp(조금 여리게) 사이의 목소리 보다 작았으며 p(여리게)로 표현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 '탐색 단계(4회기~8회기)' 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표-17> 대상자B의 ‘탐색단계’ 언어적 반응 · 음악적 반응분석

영 역	분석	
	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자아 존중감	▸ 4회기, 아동기 자신을 회상하고 “어린 시절 왕따를 당한 후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는 대인관계의 소극적인 모습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 하고 있음. ▸ 4회기, 상승하는 노래 인생 그래프를 그렸고 치료사가 그 이유를 물어	▸ 5회기, ‘친구라는 것’ 가사를 낭독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B가 랩으로 불러보겠다며 랩으로 노래 함.

	보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긍정적인 눈으로 밝게 보여요.” 라며 미래는 지금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자신감을 보임 .	
정서 안정성	▶ 4회기, B는 “이(「개구리 소년 왕눈이」)노래를 듣고 있으니깐...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좋은 데요 ” 라며 자신이 가진 현재의 불안과 긴장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함. ▶ 5회기, 부모님에 관한 주제의 활동을 미리 알고 자신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예민하게 반응함.	▶ 4회기, 「개구리 소년 왕눈이」노래 후렴구 “빰빠밤”을 부를 때 처음에는 정확하게 맞춰서 하지 못하다가 반복해서 부르며 점점 치료사의 목소리에 맞춰 같이 노래 부르려 함. ▶ 5회기,「내 어머니」노래를 부르며 목소리의 떨림이 심함.
문제해결 능력	▶ 5회기,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이런 거 말해야 하나요?”하며 답변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망설임. ▶ 6회기, 친구에게 편지글을 쓰는 활동에서 “지금 써요?”라고 말하며 이 전에 보였던 모습처럼 귀찮아하거나 피하지 않음. ▶ 6회기, 대부분 지문에도 답변을 잘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치료사의 질문에 “그냥요” 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함.	▶ 4회기,「화가」노래를 잘 모른다고 해서 노래 부르는 것을 시도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들으려고 만하며 자신의 자유로운 음악적인 표현을 두려워함. ▶ 6회기,「친구」노래를 부를 때 고개를 숙이며 노래했고 치료사가 고개를 들고 노래 부르기를 원했을 때, 수긍하고 고개를 들고 소리를 좀 높여서 노래함.

4회기 B는 초반 「화가」노래를 잘 모른다고 하며 감상위주의 수동적인 이며 자신만의 자유로운 음악적인 표현을 두려워하는 자신감 없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노래를 통해 어린 시절 자신을 만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며 이 전 회기에서 나타난 자신과 관련 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치료사의 심층적 질문에 피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려는 변화가 관찰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B가 자신에 대한 기대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B는 「개구리 소년 왕눈이」의 왕눈이는 괴롭힘을 당하 던 자신의 모습과 100%일치 한다고 말하며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가사에서의 왕눈이는 인내심과 끈기가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닮고 싶다고 말하며 '내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부분 중 '무지개 연못'을 '나의 마음'으로 가사로 나타냈다. 이러한 음악적 반응을 통해 B가 내면의 상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요「화가」노래는 '봄'의 분위기를 느낀다고 했고 가사 중 '꽃들이 웃고 있는 모습'의 '꽃'을 현재의 자기 모습이며, '나비가 훨훨 날아가고'의 '나비'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5회기는 B가 이 전 회기까지의 활동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부모님' 주제를 정했다. B는 자신이 정한 주제의 노래 이승환 「내 어머니」를「엄마」로 제목을 수정했고 모든 부분에서 어머니를 느낄 수 있다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B는 노래하는 목소리의 떨림이 심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 또한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이런 거 말해야 하나요?"하며 쉽게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언어적 반응을 통해서 B가 낮은 문제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회기 B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사 찾기를 어려워 했 던 준비 단계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본 회기에서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치료사가 의도한 바는 노래 속에서 바꾸고 싶은 문단을 바꿔 자신이 적은 글을 노래로 부르는 활동으로 진행 되었지만 B는 다른 방법으로 노래 해 보겠다며 새로운 것을 시도 하는 도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노래를 부를 때고 개를 숙이며 치료사가 고개를 들고 노래 부르기를 원했을 때, 수긍하고 고개를 들고 소리를 좀 높여서 노래했다.

다음<가사5>는 B가 자신에게 친구 중 가장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OO'에게 쓴 가사이다.

<가사 5>

친구라는 것

- 대상자 B -

OO아 잘 지냈니?
고등학교 때 고마웠어.
너란 친구를 만나서 행복했어.

B는 음악치료를 하면서 잊고 있던 지난 기억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 했다. B가 이전에 자주 보였 던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치료사를 경계하고 방어하는 모습이 많이 줄었다. 또 자신감이 생기면서 과제수행능력에서도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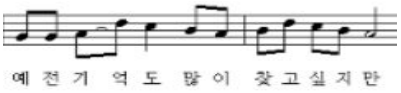
7회기는 '현재' 주제와 '사랑'이라는 부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B는 고등학교 때 자신의 짝 사랑에 관해 먼저 이야기 했다. 그 당시 자신은 겁쟁이로 좋아하는 아이에게 고백도 하지 못했다며 지금도 후회 하고 당시 생각을 한다 했다. 그리고 지금은 말 수가 많아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도망갈 정도라며 편하게 장난 섞인 말을 했다. B는 노래를 듣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떠올렸다고 말을 하면서 요즘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데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좀 줄여 야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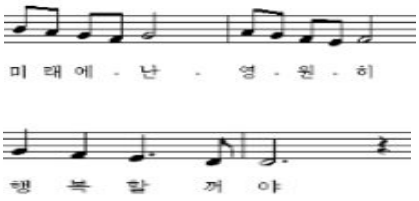
8회기 '나의 꿈과 미래'에 대한 주제로 이한철의 「슈퍼스타」노래를 감상하고 노래했다. B는 노래의 주인공이 자신과 닮았다고 하며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애가 도시로 올라와서 많은 일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래 가사 중에는 '내 인생엔 내가 슈퍼스타'라고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하며, B는 자기 인생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B는 노래가 좋다며 2번 반복해서 부르자는 제안을 했다. 또 주인공이 꿈을 이뤄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꿈이 없지만 앞으로 꿈을 가질 것 이라고 말했다.

(3) '창작 단계' 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표-18> 대상자B의 '창작단계'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영 역	분석	
	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자아 존중감	▸ 12회기, "제가 이걸 만들었다니 뿌듯하네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생각보다 잘 한다고 말함. ▸ 13회기, 앞으로 변화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OOO)모임에 잘 나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 곳에서 사람과 어울려야 겠어요" 라고 말함. ▸ 14회기,"오~ 괜찮은데요? 저 이거 CD로 만들어 주세요. 알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노래를 병실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치료사에게 CD를 부탁함.	▸ 9회기,「기쁨」이라는 곡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미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싶다는 내용으로 가사를 완성함.
정서 안정성	▸ 9회기, B는 자신이 작사한 '기쁨' 노래의 가사를 읽으며 "내용이 참 평화 롭네요"라고 말하며 불안한 정서를 보인 초기 회기에서보다 변화 된 모습을 보임.	▸ 14회기, 치료사가 새로운 멜로디를 들려주면서 새로운 의견을 이야기 했을 때 "선생님 것도 좋은 데요"라고 말하며 인정하고 칭찬하며 한 번 더 노래 함. 예) 

문제해결 능력	▶ 12회기, 자신이 가사로 노래를 만들어 본 후 “생각 보다 할 만하네요.” 라고 말하며 어려운 과제에 대한 대처능력에 자신감을 보임.	▶ 9회기, 노래가사 에서도 나타나듯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부분은 대상자가 타인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편하게 대할 수 있으며 낯선 상황도 잘 대처한다는 뜻의 가사로 표현함. ▶ 14회기, B는「나에게 쓰는 미래 이야기」 중 멜로디 창작이 한 부분에서 막히자 “선생님 그 부분만 피아노로 좀 쳐 주세요” 라고 말하며 회피하지 않고 다음 아래 선율을 이어감. 예) 

9회기는 B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가사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다음 <가사 6>은 ‘기쁨’이란 주제로 쓴 가사 이다.

<가사 6>

기쁨

- 대상자 B -

저는 기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장애가 있지만 활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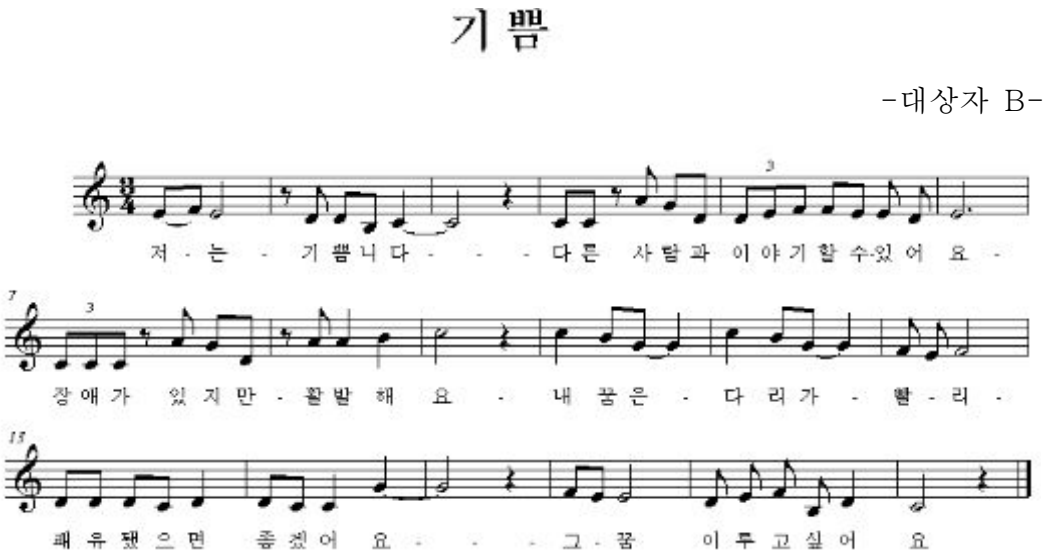
제 꿈은 다리가 빨리 쾌유 됐으면 좋겠어요.

그 꿈 이루고 싶어요.

B는 자주 뼈가 부러지고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어렸을 때 마음 아픈 일이 많았지만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 때문에 성격이 조금 씩 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 이야기를 했다. 본인과 형은 같은 듯 다르다고 말하며 너무 내성적인 형을 걱정하기도 했다. B는 완성 된 가사 내용을 읽고 “참 평화로운 듯 합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10회기 B는 지난시간에 만든 가사에 멜로디를 넣어 하나의 곡을 만들었고 처음해 보는 익숙하지 않은 노래 창작 활동이었기 때문에 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B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하며 치료사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곡의 분위기는 발라드인데 그 이유는 자신은 천천히 변화 되고 싶고, 기쁨이라고 해서 꼭 곡이 밝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다음 <악보4>는 B가 완성한 「기쁨」이라는 노래이다.

<악보4>



11회기, B는 자신이 얼마 전에 꾼 꿈에서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 속에 있던 아버지를 만났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정상적인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불우하게 느꼈다고 했다. 특히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 할 때 부모님이 안타깝다고 했다. 아버지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함께 한 추억이 없지만 자신도 미래에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고 했다. B는 창작곡 주제를 '사랑해요. 아버지'라고 정하고 평소에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아빠한테는 노래를 통해서라도 말하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희귀병을 가졌지만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님의 심정을 이제는 이해 할 수 있다고 그 걱정들이 생각된다고 하며 가사 중에는 '아버지께서 늘 걱정하던 나' 부분이 아버지를 더 생각나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B는 자신이 숨기고 드러내기 꺼려 하였던 과거의 모습들을 자신의 일부 모습인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이해는 마치 자신 모습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인식의 시작으로 판단되어 졌다. 다음 <가사 7>은 B가 쓴 '사랑해요 아버지' 주제의 가사 이다.

<가사 7>

사랑해요 아버지

- 대상자 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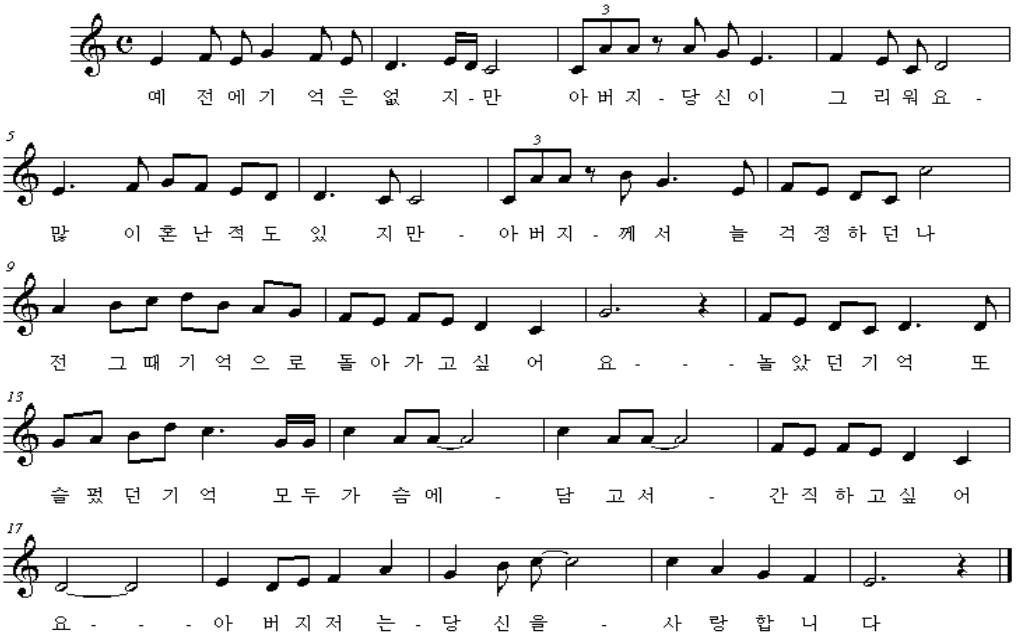
예전에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 당신이 그리워요.
많이 혼난 적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늘 걱정하던 나
전 그때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놀았던 기억 또 슬펐던 기억…….
모두 가슴에 담고서 간직하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 산소를 찾아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12회기 B는 자신이 지난 시간에 만든 가사를 보고 스스로 감탄 했다고 하며 “예전 같으면 ‘안 하면 안돼요?’라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선생님이 쓰라고 안 해도 먼저 쓰지요” 라며 뿌듯함을 드러냈다. B는 자신의 행동에 만족감을 보였고, 문제 해결에서도 어려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B는 자신의 목소리가 여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음도 잘 부른다며 강조하며 그 부분을 불렀다. 다음 <악보 8>은 B가 완성한 노래「사랑해요 아버지」이다.

<악보 5>

사랑해요 아버지

- 대상자 B-



13회기는 B가 치료사가 제시한 '미래'관한 주제의 글을 썼고 제목은 '나에게 쓰는 미래 이야기'라고 했다. 본 회기에서 B는 자신이 그동안 노력하지 않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컴퓨터 자격증을 따서 취직도 하고 싶고, 의술이 더 발달된다면 자신의 다리가 예전처럼 목발을 짚고 라도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 B는 그동안 자기 생각 속에서만 갇혀 살아 왔던 모습을 후회한다고 말하며 자기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OOO OOO 카페 활동을 하며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궁금한 것도 물어 보고, 고민도 상담하고 싶다고 했다. 다음 <가사 5>는 미래의 자신에게 쓰는 편지이며, '미래만 생각 하고 싶어' 가사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했다.

<가사 8>

나에게 쓰는 미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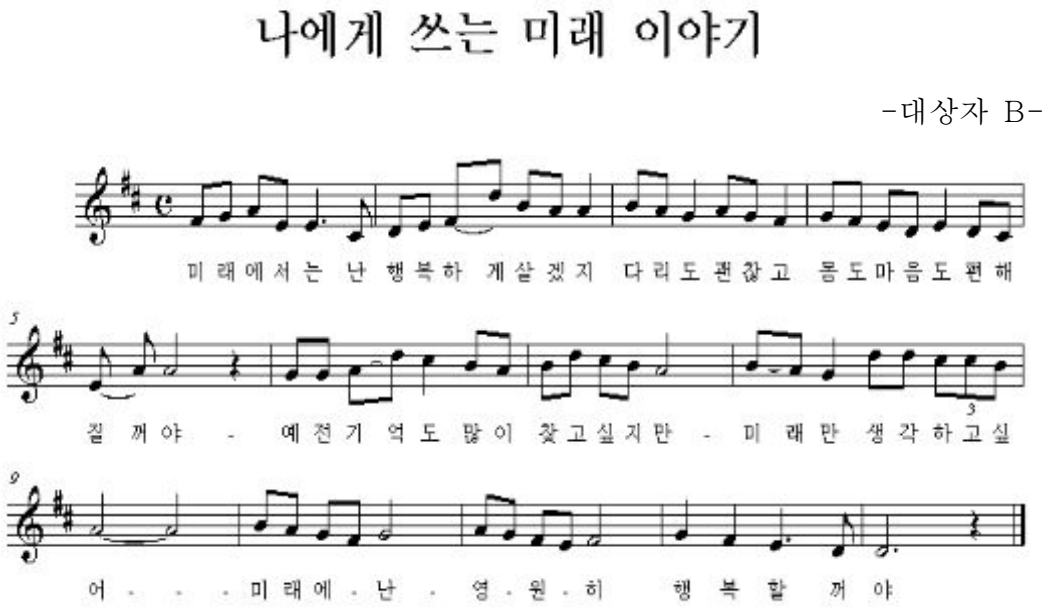
- 대상자 B -

미래에서는 난 행복하게 살겠지.
다리도 괜찮고 몸도 마음도 편해 질 거야.
예전 기억도 많이 찾고 싶지만, 미래만 생각하고 싶어.
미래에 난 영원히 행복할 거야.

14회기는 B가 쓴 '나에게 쓰는 미래 이야기' 가사로 노래를 만드는 시간이었다. 창작곡「나에게 쓰는 미래 이야기」중 '영원히 행복 할 거야' 가사는 B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했다. 또한 '미래만 생각 하고 싶어' 부분의 멜로디를 가장 강조 했다. 그 동안 아픈 기억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 왔지만 앞으로는 미래의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싶다고 하며 자기 신뢰감을 표현했다. B는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면서 짧다고 느꼈다고 하며 두 번 반복해서 불러 보자며 자기주장을 스스럼없이 말 했다. B는

마지막 회기로 아쉽다고 말하며 만든 노래를 CD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말들과 다짐들이 흔들릴 때마다 한번 씩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다음 <악보3>은 B가 만든 「나에게 쓰는 미래 이야기」곡 이다.

<악보 6>



3) 대상자 C

대상자C는 자신의 건강악화와 딸에 대한 걱정으로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자기 비하와 관련 된 말을 주로 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 최근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자신감이 많이 결여 된 것으로 보였다. 노래심리치료를 시행하며 자신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많이 하였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C는 준비단계 (1단계~3단계)에서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시도도 해보기 전에 자

신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회피하려고 하는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주어진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게 될 경우에도 긴장한 표정으로 연주하는 등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C는 자신이 작곡, 작사한 결과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탐색단계(4단계~8단계)와 창작단계(9단계~14단계)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C가 긍정적인 자아상이 확립되고 이로 인한 높은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특히 감정의 기복과 예민한 반응을 보인 준비단계에서 점차 변화 되고 안정된 정서 반응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1) '준비 단계(1회기~3회기)' 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표-19> 대상자C의 '준비단계' 언어적 · 음악적 반응분석

영 역	분석	
	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자아 존중감	▸ 2회기,「나는 문제없어」노래를 듣고 C는 "연습이 어디 있어요. 다 실전이에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라며 자신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축척 된 삶의 경험을 이야기 하며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2회기, 노래 잘했다는 칭찬에 "저 잘했어요? 제가 좀 잘해요"라며 에 자신감을 보임.	▸ 1회기, 치료사가 「만남」곡을 흥겨운 느낌으로 연주하자 웃음을 보이며 몸을 리듬에 맞춰 자유롭게 움직였으며 노래 부를 때 목소리에 힘이 실림.
정서 안정성	▸ 2회기, C는 "여기서 뭘 찾으라고요?" "이거 하나면 돼요? 또 찾아야 되나?"하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질문을 다시 물으며 확인 하며 감정이	▸ 1회기,「만남」 노래를 부르기 전에 목소리를 자꾸 가다듬었고, 노래하는 목소리는 치료사의 mp(조금 여리게) 목소리 보다 더 작은 세기

	수시로 바뀜. ▸ 3회기, 소감을 물었을 때 “너무 좋네요.”라고 말했고, 자신이 평소 좋아 했 던 노래를 선생님 덕분에 의미 있게 들을 수 있었다고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말함	의 pp(매우 여리게) 노래함.
문제해결 능력	▸ 1회기, “제가 노래방은 가는데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부르려니 좀....”이라며 자신감 없고 말을 끝맺지 않음.	▸ 3회기,「나의 노래」가사를 보고 노래를 불렀지만 익숙하지 않은 듯 매끄럽게 노래하지 못하고 반 박자씩 늦게 따라함.

1회기 C는 경직되고 무거운 표정을 보였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말들을 했다. C는 치료사에게 “제가 노래방은 가는데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부르려니 좀....”라고 하며 작은 목소리로 소극적인 참여를 했다. 특히「만남」노래를 부르기 전에 목소리를 자꾸 가다듬었고, 노래하는 목소리는 치료사의 mp(조금 여리게) 목소리 보다 pp(매우 여리게)로 작은 소리로 노래하며 편안하고 매끄럽지 않게 노래했다. 또한 치료사의 질문에는 즉각적인 대답을 하였으나 되물어 보는 경우도 있었다. C는 치료사에게 자신이 유전질환 이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며 가장 나는 만남으로 꼽았다.

2회기 C는 음악적 반응에 여전히 음악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확신이 없었다. 4가지 주제에 따른 노래를 들려줬을 때에 이재훈의「사랑합니다」가 가장 좋은 느낌을 준다고 말하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며 신과 자신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다고 자신의 느낌을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으나, “ 여기서 뭘 찾으라고요?” “이거 하나면 돼요? 또 찾아야 되나?”하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문제없어」노래를 통해서는 “연습이 어디 있어요. 다 실전이에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라고 말하며 긍

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번갈아가며 표현하는 모습은 C가 감정기복이 심하고 정서가 불안한 상태로 보였다. 희귀질환자로서의 자신의 삶과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들 나타내는 곡이었으며 삶의 대한 만족 보다는 자신의 모습과 삶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견해와 언어 반응을 보였다.

3회기는 자신에게 의미와 감동을 주는 '나의 노래 찾기'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C는 지난 회기 때 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했고, 노래의 주인공과 비교하며 내면의 자아를 만나는 시도를 했다. C는 김광석의 「나의 노래」를 부를 때 가사에서 눈을 때지 않으며 매끄럽게 노래하지 못 해 반 박자씩 늦게 노래하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C는 1회기에 주로 나타난 자기 노출에 예민한 반응들이 감소되었고, 점차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려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목소리가 작고 박자를 놓치는 등 소극적인 노래 부르기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에서는 어려움을 보였다. 마지막 소감을 이야기 하며 "너무 좋네요."라고 말했을 하며 감정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기복이 심했다.

(2) '탐색 단계(4회기~8회기)' 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표-20> 대상자C의 '탐색단계' 언어적 반응 · 음악적 반응분석

영 역	분석	
	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자아 존중감	▸ 7회기, C는 "남편은 늘 고마워요. 본인도 장애가 있지만 유전이 될 걸 알면서도 결혼하고 OO를 낳았고. 표현은 안 해도 절 많이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고.."	▸ 6회기,「타타타」노래의 제목을 '인생살이'로 바꾸고 간주 부분에 자신의 가사를 넣겠다고 하며 '남에게 배려하고 피해를 주지 않고... 라고 가사로 마음을 표현함.

정서 안정성	▸ 4회기,「세노야 세노야」를 부르며 목소리가 줄어 들었고 갑자기 노래를 중단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가수가 아니라고 하며 누가 불렀는지 물어 보기 위해 노래를 멈췄음. “노래가 예전에 듣던 게 아니네요. 이거는 누가 불렀어요? 라고 물어보며 확인함. ▸ 5회기, C는 자신의 엄마가 돌아가신 후의 이야기 하며 이야기 하며 “제가 스스로 저를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싫었어요”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함.	▸ 4회기, 「세노야 세노야」노래를 잘 부르다가 중간에 박자를 놓치자 목소리를 갑자기 멈칫하고 다시 시작함. ▸ 7회기,「어제 보다 오늘 더」를 감상 후 tranquillo(고요하게)의 느낌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목소리로 노래함.
문제해결 능력	▸ 8회기, 짧은 가사 짓기를 부탁했을 때 “어휴~머리야~ 머리가 더 아프네... 가사 짓기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 에요?”라며 부담을 보이고 처음에는 회피하였지만 곧 가사를 만들어 봄.	▸ 6회기,「타타타」노래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노래 불렀고 대답부분에서 음정에 따라 맞추어서 노래로 반응하며 자발적인노래 참여를 하고 노래하는 발음도 명확한 편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음.

4회기는 C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과거 및 아동기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사용된 노래는 사전 인터뷰에서 C가 어린 시절에 즐겨 부른 노래 「세노야 세노야」가 사용 되었다. 자신이 유일하게 외출 하 던 친척집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사촌 언니 오빠에게 칭찬을 받았고 처음 받아 본 칭찬이었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C는 노래를 잘 부르다가 중간에 박자를 놓치자 목소리를 갑자기 멈칫하더니 중단하며 불안한 정서를 보였다

5회기는 이전 단계에 비해 자발적인 언어적 반응을 보였고, 치료사의 질문에 반응하는 태도가 좀 더 부드러워 졌다. C는 나훈아「홍시」를 부르며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노래 불렀다. 또한 인순이 「아버지」노래를 통해서 아버지를 회상했고, 가사 중에는 ‘때론 사랑을 하고 때론 미워도 하고’

부분이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잘 말해 주고 있고 사랑했지만, 미워할 정도로 상처가 되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다. C는 노래를 통해서 현재의 자신의 과거의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며 자신이 바라본 내 모습이 아닌 나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표현하며 자기 개방을 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했다고 했다. 이는 음악적 반응으로 나타났으며 정확한 가사의 발음을 하고 자발적인 노래 참여를 보였다.

6회기 C는 「타타타」노래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불렀고 대답부분에서 음정에 따라 맞추어서 노래하며 자발적인노래 참여를 했고, 발음도 명확한 편으로 문제해결 능력에서 향상 된 모습이 관찰 되었다. 「타타타」노래를 희망했다. C는 가사를 읽으며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뜻으로 치료사에게 언급했다. 특히 '비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음음음 어허허' 가사에 의미를 두었고 이 부분의 웃음소리를 보고 치료사에게 어떻게 생각 하냐고 질문을 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세상살이에 대해 한번쯤 생각하게 하는 곡이라고 하였고 자신이 비록 돌연변이로 태어났고 동정으로 키워졌지만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노래를 부르며 웃음소리에 악센트를 주며 강조를 했고, 짧은 웃음 속에서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가사 9>는 자신에게 쓰는 짧은 메모라고 이야기 했고 김국한의 「타타타」노래를 듣고 생각난 내용이며 제목은 '나는' 이라고 했다.

<가사 9>

나는

- 대상자C -

어린 시절엔 별 의미도 모르고 살다가
엄마 없는 인생을 살며 많은 걸 알고

남에게 배려하고 피해주지 않았고
늘 밝고 씩씩하게 사는 내가 최고다

7회기는 '사랑'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고, C는 1회기에서 치료사에게 말 했던 자신의 사랑이 누군지 기억 나냐며 먼저 질문했고 치료사가 대답하자 웃음 섞인 말투로 "찍었죠?"라고 말했다. C가 '사랑'과 관련 된 노래 이야기를 사전 인터뷰에서 언급이 하지 않아 치료사가 김종국의 「어제보다 오늘 더」라는 노래를 소개했다. C는 이 노래를 들었지만 불러 보지는 않았다고 하며 차분하고 안정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다음 <가사10>은 C가 자신의 남편에게 쓰는 편지글 'OO씨에게'로 「어제보다 오늘 더」노래를 배경음악으로 낭독을 했다.

<가사 10>

OO씨에게

- 대상자C -

OO씨에게
이렇게 쓰는 게 부끄럽지만
표현 없는 모습에 난 늘 투정을 부리죠.
웬만하면 표현 좀 하고 살자고요.
요즘엔 그래도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늘 당신이 나를 아끼고 사랑 하는 거 알아요.
나도 지금 보다 더 잘할게요.
우리 건강도 챙기며 서로 의지하면 잘 살아 봐요.

8회기는 C는 이한철의 「슈퍼스타」노래를 통해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 모습과 미래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본 회기에서는 "어휴~머리야~ 머

리가 더 아프네... 가사 짓기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 에요?”라며 말하며 노랫말 만들기에 대해 부담을 느껴진다며 말했지만 곧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응은 C가 자아개념과 관련된 문제 해결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가사 11>은 C가 슈퍼스타 노래 중에서 가사 바꾸기 한 부분으로 가사에도 표현 하고 있듯이 자신의 딸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C는 음악적 표현에서 자신감을 보였는데 특히 '우리의 슈퍼스타 OO이' 부분의 목소리가 다른 가사에서 보다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표현 했으며, 자아존중감과 정서 안정성 관련 언어적 음악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가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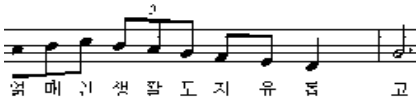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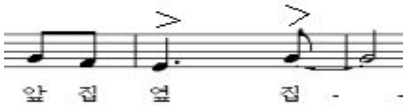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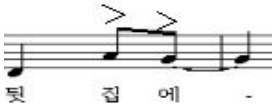
보호

-대상자C-

OO을 보호해야 할 이유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후회 없이만 지켜 준다면
우리의 슈퍼스타 OO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에겐 눈부신 아름이가 있어
행복해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3) ‘창작 단계(9회기~14회기)’ 에서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표-21> 대상자C의 ‘창작단계’ 언어적 · 음악적 반응 분석

영 역	분석	
	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자아 존중감	▸ 9회기, C는 “전 밝고, 명랑한 사람이에요”라며 <가사 12>에 나타내며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함. ▸ 14회기, “선생님 이제까지 한 거 한글로 도레미파 좀 써주세요. 피아노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스스로 연주 해보려는 모습과 해 낼 수 있는 자신감을 보임.	▸ 10회기, “선생님 앞에서 잘 불러야 니깐 저 연습 좀 할게요. 노래 좀 틀어 주세요”라고 하며 부끄러워하거나 치료사를 의식하지 노래를 다시 불렀고 p(여리게)의 작은 평소 목소리보다 mf(조금 세게)로 조금 큰 소리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표현 됨.
정서 안정성	▸ 12회기, 치료사가 최근 C의 생활을 물었을 때 “오늘 복지관에 갔는데 아는 언니가 고맙게도 제 밝아진 표정이 좋다고 하던데. 선생님도 그래요?”라며 말하며 안정된 정서상태가 외면으로 드러남. ▸ 14회기, 마지막 노래를 완성 한 후 “저 이제 이 시간 끝나고도 집에서 만들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작곡 전공이면 계속 도와 달라고 할 텐데”라며 기존 예민한 어투와는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말함.	▸ 10회기, 자신이 창작한 노래를 치료사가 불렀고, 멜로디를 틀리자 지적하며 예민하게 받아 들였고, 스포르 잔도(그 음만 특히 세게)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 불러줌. 예)  ▸ 12회기,「인연」노래 중 목소리가 작아졌고 치료사가 인위적으로 크게 반주하자 목소리가 따라 커지며 안정된 정서로 상대방을 수용함. 예)  
문제해결 능력	▸ 12회기, “저도 예전에 피아노 배웠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네요. 아니면 저 혼자서도 집에서 연습해도	▸ 12회기, 창작곡「인연」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처음 만든 멜로디와 비슷하게 맞춰나가며 과제를 어려워했

	되는데” 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음.	지만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 함.

9회기부터 14회기 까지는 작사와 작곡의 창작 단계로 진행되었고 탐색 단계에서 나타난 C의 이슈화 된 문제들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C는 9회기부터 진행 된 과제들에 이 전 단계에서 보인 부담감이 줄어들었고, 자신이 처음 만든 노래 가사를 보고 뿌듯함을 보였다. 자아개념 영역 중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만족해하는 자아 존중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가사 12>는 C가 ‘나’에 대한 주제로 쓴 가사이다.

<가사 12>

나에게

-대상자 C-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면서
자유의 몸이 없으면 했는데
자유란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얽매인 생활도 자유롭고
나에게 희망이 있음에 감사한다.
밝고 명랑한 내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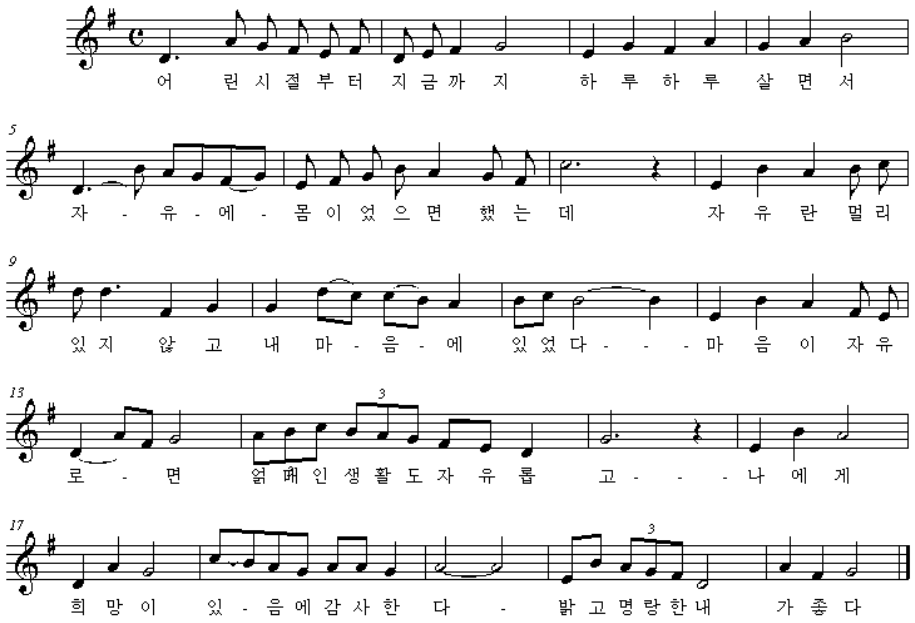
10회기는 C가 직전 회기에서 쓴 ‘나에게’ 가사를 바탕으로 작곡을 했으며 자신이 직접 노래하고 치료사가 이를 사보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C는 헷갈리는 부분에서 치료사에게 피아노 연주를 부탁했고, 다시 불러 보며 선율을 완성해 나갔다. 예전 보다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또 “선생님 앞에서 잘 불러야 니깐 저 연습 좀 할게요. 노래 좀

틀어 주세요"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노래를 다시 부를 때에는 p(여리게)의 평소 목소리보다 mf(조금 크게)로 표현 하며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 <악보 7>은 B가 <가사 12>를 토대로 완성한 곡이다.

<악보 7>

나에게

-대상자 C-



C는 멜로디 중에서도 '자유란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었다' 부분을 강조 했으며, 스타카토에 가까운 악센트(그 음만 특히 세게)로 불렀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했다. 마지막 음을 '레' 혹은 '솔'에서 했고 갈등하다가 높은 음일 수록 더 나를 밝게 표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결국은 '솔'

로 노래를 맺었다.

11회기는 탐색 단계에서의 논의 된 주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노래를 만들기를 계획 하였으나, C가 최근에 자신에게 있 었 던 일로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 앞 동에 사는 동생에게 얼마 전에 상처를 받았는데 노래를 만들면서 내 진심을 표현하면 마음이 건강 해 질 것 같다고 했으며 이 제안대로 본 회기에서는 C가 자신의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를 만들었다. 노래는 다음 <가사 13>와 같다

<가사 13>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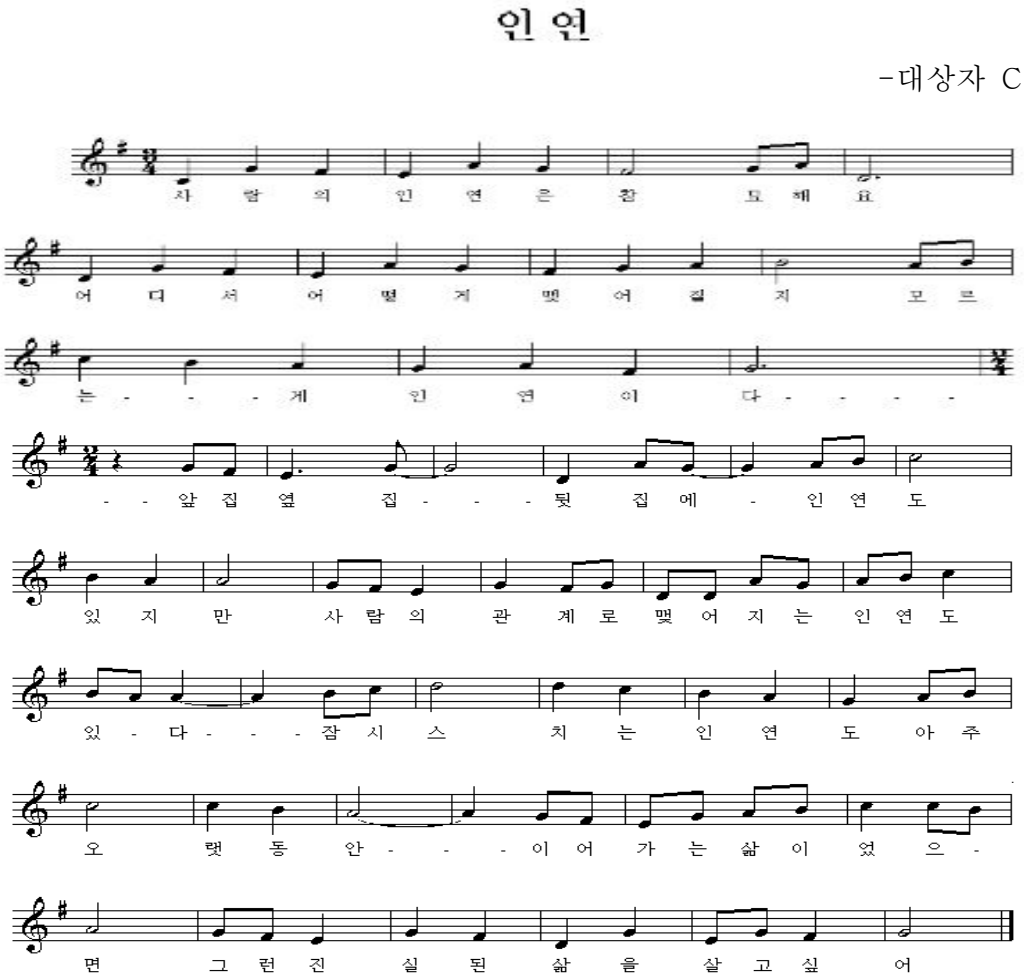
-대상자 C-

사람의 인연은 참 묘해요
어디서 어떻게 맺어질지 모르는 게 인연이다
앞집 옆집 뒷집의 인연도 있지만
사람의 관계로 맺어지는 인연도 있다
잠시 스치는 인연도 아주 오랫동안
이어가는 삶이었으면, 그런 진실 된 삶을 살고 싶어

12회기는 C가 직전 회기에 쓴 '인연'의 가사를 바탕으로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다음 <악보8>과 같다. 창작곡 '인연'은 보통빠르기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작 해 중간에 경쾌한 분위기의 곡이다. C는 사람의 관계를 통한 상처를 받았지만, 이 노래의분위기는 현재 자신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런 진 실 된 삶을 살고 싶다'는 자신의 고백부분이라 독백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게 멜로디를 구성하였고 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C는「인연」노래를 부르며 목소리 크기의 변화를 보였는데 목소리가 작아졌다가도 치료사가 인위적으로 크게 반주하자 목소리가 따

라 반응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예민한 반응이 아닌 안정 된 음악적 반응을 보였다. 반복해서 부르고 연주하면서 처음 만든 멜로디와 비슷하게 맞춰나가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문제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려 하며 문제해결능력에서 변화를 보였다. C는 얼마 전 복지관에서 자신의 밝은 표정을 보며 칭찬받은 이야기를 하며 편안해진 내면 정서 상태가 외면으로 표현되어짐을 알 수 있다.

<악보8>



13회기는 C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탐색단계를 바탕으로 떠올렸고 또 한 번 자신의 딸에 대한 언급을 했다. 다음<가사 14>은 C가 만든 '작은 천사(딸에게)'의 가사이다.

<가사 14>

작은 천사(딸에게)

-대상자 C-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작은 날개로
땅위에서라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의 내 마음처럼 너의 마음도 내 마음과 같을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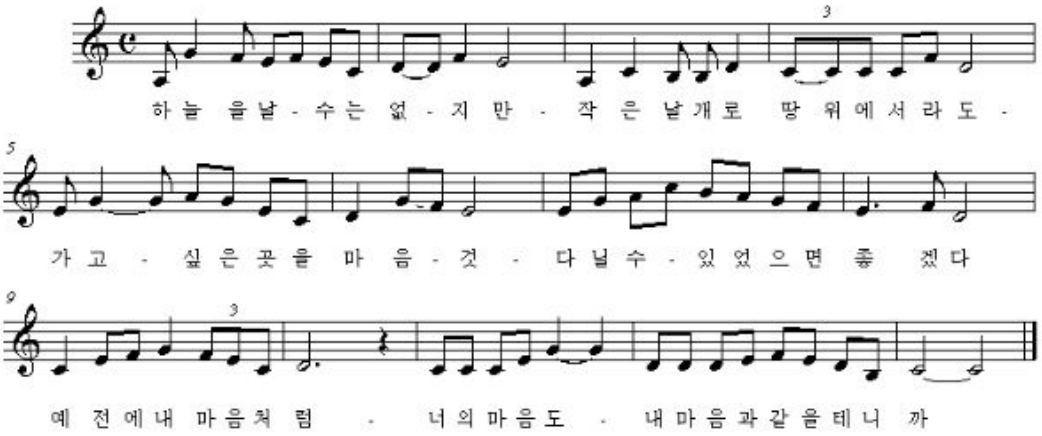
'작은 천사(딸에게)'는 C가 자신과 똑같은 불완전 골 형성증을 진단 받은 딸에게 미안한 마음과 딸에 대한 소망을 적었다고 하며, 처음 가사 중에 나오는 '작은 날개'로 제목을 적었지만, 이 보다도 '날개를 가진 작은 천사'로 표현하고 제목을 수정했다.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C는 어린 시절 줄 곧 집에서 갇혀 지냈고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자신의 딸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은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이 자신 보다 나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14회기는 C가 직전 회기에 쓴 '작은 천사(딸에게)' 가사로 곡 만들기를 했고, 다음 <악보9>와 같다.

<악보9>

작은 천사 (딸에게)

-대상자 C-



C는 자신의 딸이 부르고 피아노 칠 수 있게 쉽게 만들고 싶어서 처음을 낮은 '라'로 시작 했지만 중반부로 갈수록 노래가 밋밋하다고 해 클라이맥스를 만들었고 그 부분은 '다닐 수 있었으면' 부분이라고 했다. C는 자신이 처음 만든 노래 '나에게'서 나오는 셋잇단음표도 넣어 보자고 제안했고, 이를 표현 한 부분이 '땅 위에서'이다. C는 치료사의 질문과 과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이 줄어들었고 치료사 앞에서 실수할까봐 불안해하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C는 평소 음악을 듣는 건 좋아했지만 이번 기회에 가사와 노래를 만들어 보니 작곡가의 고통을 알겠다고 말하며 공감 했다. 비록 장애가 있는 몸으로 태어났지만 마음만은 노래처럼 자유로워 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노래심리치료가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K대학 부속병원인 G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로 자아 개념 점수가 낮은 3명을 선별하였다. 연구는 주 2회 총 14회기의 개별 노래심리치료프로그램으로 진행 하였다. 대상자들의 자아개념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성신자아개념 척도를 이용해 사전 ·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회기별로 언어적 음악적 반응과 행동을 사례 분석하였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에게 노래심리치료를 실시한 결과 참여한 대상자 모두 사전점수 보다 사후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아개념이 낮은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들이 노래심리치료를 통해 자아개념 형성과 관련된 자아 존중감, 정서 안정성, 문제 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자아개념이 낮은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아개념의 세 가지 하위영역 평균 점수도 대상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자아 존중감 요인에서 대상자A가 가장 큰 점수 변화를 보였다. 대상자A는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인 자아 존중감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 이러한 모습은 노래 심리치료 중에 자주 관찰 되는데 노래 부르기를 할 때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로 노래했고,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3회기부터는 노래를 부분적으로 크게 부르거나

목소리의 자신감을 보였고, 노래 가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A는 노래심리치료 2회기 당시 예전에 다니 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다고 했는데 거의 바깥출입을 하지 않던 A에게 있어서는 큰 결심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A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자아 존중감 향상의 하나의 발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가 평소 음악을 좋아하며 편안하고 조용한 노래를 즐겨 들었던 것이 활동을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더욱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중 정서 안정성 영역에서는 대상자A와 대상자B의 점수가 3점 증가했고, 대상자C는 13점의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대상자C는 평소 딸과 남편과의 대화에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노래심리치료 중에서도 나타났다. 한 회기에서도 예민한 모습을 보이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이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는 가족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편과는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자신의 시간을 가지기도 어려워했고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은 걱정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불완전 골 형성증의 합병증과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으로 인한 고통이 많았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간에 멈추거나 머리 아프다고 말을 했고, 정기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프로그램 진행 기관과 맞물려 예민하고 긴장 된 반응을과 함께 우울도 보이는 등 건강의 악화와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 안정 된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7회기에서 C는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가사를 쓰며 불안한 정서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를 직면하면서부터 그 이후 회기에서는 정서 상태가 조금씩 안정감을 찾았다.

자아개념 하위영역 중 문제 해결능력 영역에서는 대상자B가 다른 대상

자에 비해 가장 낮은 사전 점수가 나왔고 대상자A와 같이 7점의 높은 변화를 보였다. 대상자B는 사전검사 때에도 문제해결능력의 어려움이 관찰되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없었지만 치료사에게 문항에 대해 다시 물었다. 이러한 행동은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5회기 때 까지 지속되었다. 치료사의 짧은 질문에도 “몰라요”라고 대답하거나 “이런 것도 이야기해야 되나요?” 라며 문제 해결을 회피하거나 가사를 완성할 때에는 “대신해 주면 안돼요?”라고 하며 강한 의존심을 보였다. 특히 3회기 때에는 자신이 어제 상대방에게 말실수를 하며 상처를 줬는데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하며 불쾌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물어 보며 자신의 문제점을 점차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12회기 때에는 B가 다리 수술을 하면서 입원을 하게 되어 조금의 시간을 두고 노래 가사와 멜로디 만들기 활동 중심의 회기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B는 문제해결능력과 관련 된 음악적 반응의 많은 변화를 보였고 자신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는지 “예전에는 안하면 안돼요? 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쓰라고 안 해도 먼저 쓰죠?”라고 말하며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둘째,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들은 자아개념 점수가 평균보다 약간 낮았고 하위 영역에서는 대상자 별로 다른 어려움을 보였다. 대상자A의 경우에는 자아 존중감이 낮았지만 총 자아개념 점수와 같았고, 대상자B는 문제 해결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였고 총 자아개념 점수 보다 4.8점이 낮았다, 대상자C의 경우에는 정서 안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자신의 총 자아개념 점수 보다 무려 14점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대상자 3명 모두 총 자아개념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못 미치는 상태였지만, 하위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대상자 A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한 영역에서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대상자들은 노래심리치료의 후기 단계로 갈 수록 치료적 환경 안에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언어적 · 음악적 반응으로 대처 및 해결 하는 시도가 증가 하였고 프로그램 초반에 보인 회피와 저항이 줄어들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자아 존중감, 정서 안정성, 문제해결능력'과 관련 된 언어적 · 음악적 긍정적 반응의 증진은 노래심리치료가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상자들의 낮은 자아개념의 영향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상자A와 대상자B는 형제 관계로 가족 중에서 유일한 불완전 골 형성증 질환자 이며, 대상자C 역시나 자신의 딸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질환을 가지게 된 경우이다. 대상자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들의 갑작스러운 돌연변이 장애로 인한 충격과 죄책감 때문에 가정의 불화와 해체를 경험 했다. 이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 자아 존중감이 많이 상실된 상태이다. 부모의 부재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외부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된다. 부정적인 자아상과 자아개념은 가족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만 대상자들은 온전한 가정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 때문에 생긴 가족간의 갈등과 아픔들을 오랜 시간 동안 겪었고 지금도 그 죄책감에 힘들어 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재와 이들의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PEC(준비-탐색-창작)'의 체계적 과정으로 이루어진 노래심리치료는 자신을 발견하고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며 잘못 된 자아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탐색 발견을 위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불완전 골 형성증과 같은 희귀 ·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낮은 자존감과 불안한 심리적 상태등과 같은 내면적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노래심리치료는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들이 경험 하는 심리적인 혼란에 효과

적으로 접근하여 내재 된 자아를 발견하고 긍정적이고 바른 자아형성에 도와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밝혀진 것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후속연구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연구 과제와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특성상 이동이 힘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자아개념형성을 위한 하위 영역인 대인관계능력, 대인 신뢰감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어려웠다. 그룹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인관계 능력과 대인신뢰감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외부로의 노출을 두려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비디오 녹화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오디오 녹음으로 대체하여 대상자의 언어적 · 음악적 반응을 분석하였는데 언어적 · 음악적 반응 이외에 관찰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오 녹음으로만 진행이 되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노래심리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구체적으로 검증받지 않아서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구하여 타당성 있고 신뢰도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경래(2005). **꼴라쥬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개념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강수진(2009). **학교부적응 중학생의 비 학업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노래심리치료.**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강지은(2006). **자아개념 개선을 위한 정신지체 아동의 음악치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고경은(2005). **음악치료의 대상별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곽성혜(2002). **만성질환환자와 환자 가족의 심리적 문제 및 갈등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권기덕(1981). 신체장애아동의 자기개념에 대한 부모지각의 일연구. **특수교육연구. 9**, 53-127.

권석만(1996). 자기 개념의 인지적 구조와 측정도구의 개발 . **학생연구 31**(1), 11-38.

권은경(2003). **소아당뇨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기개념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경탁(2004).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자존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동대학교.

김경화(2003). **정신분열증 성인의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동작중심의 음악치료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경희(2004). **정서심리학.** 서울: 백영사.

김남길(2009). **희귀난치성 질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김석원 · 김용민 · 김동수 · 최의성 · 손현철 · 박경진(2007). 성인 골형성 부전증 환자의 만곡 변형된 척골의 골절에 실시한 골수내 금속정 고정술의 실패 : 증례보고. **충북대학과 의과대학교 학술지, 17**(1), 8-14.

김석우(2000). **교육 연구법**. 서울: 학지사.

김선미(2007).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자기의식 및 자아 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김영미(2007). **연극 창작 활동이 여고생의 자아개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용국(1997). **지체부자유학생의 운동참여가 신체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재용 · 이윤정 · 김진숙 · 강희설 · 김남순 · 김동진 외(2002). **희귀 · 난치성질환자관리사업의 영향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규(1999). **성신자아개념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김종수 · 최승도 · 선우재근 · 배동한(2004). 산전 초음파로 진단된 골 형성 부전증 Type Ⅱ 1예. **순천향의대논문집, 10**(2), 1169-1174.

김춘선(2004). **자기개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김혜란(2004). **일 도시보건소 희귀난치질환자 보건관리 실태와 삶의 질.**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한정형외과학회(2006). **정형외과학.** 제6판. 서울: 최신의학사.

문영애(2002). **부적응 학생들의 정서변화를 위한 음악의 치료적 접근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문혜원 · 강민희 · 송정수 · 박 원 · 김철응 · 이정섭 외(2001).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3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0(3), 534-540.

민영순 · 용진선(2003). 혈액투석환자 가족에게 부담감, 사회적지지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 12**(3), 358-366.

박선영(1999). **음악치료의 구조와 치료실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박수정(2002). **정서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음악 치료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박수진(2009).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박은진(2008). **노래 심리치료가 시설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박준경(2008). **자아개념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해결중심 상담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손현자(2009).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래 만들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송해룡(2006). **희귀질환 연구병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순진이(2001). **노래 심리치료(Song Psychotherapy)를 위한 한국 대중가요의 내용 분석 : 사회 심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신규호(2002). **알기 쉬운 정형외과학.** 서울: 의학문화사

안설인(2002). **왜소증 장애인을 고려한 원룸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양참삼(1999). **인간관계론.** 서울: 양문사.

오상희(2004). **성인 화상 환자의 노래 만들기(Song Writing)를 통한 자기**

지각과 자아 존중감 변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오영희(2005). **지체장애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자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유영선(2003). **즉흥연주 음악치료가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유지원(2007). **강직성척수염환자의 인간중심 미술치료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윤경란(1999). **자아개념 훈련 프로그램이 학습부진 학생의 자아존중과 교우 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윤남순(2007). **PEC과정 모델을 토대로 한 노래심리치료가 초산모의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윤소영(2001). **집단 음악활동이 취학 전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이덕용(2002). **소아정형외과학 요람.** 서울: 최신의학사.

이명은(2007). **희귀난치성질환 복지지원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 강직성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 질환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이미정(2009).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의 정서 자아개념을 위한 노래만들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상열 · 문수영 · 전 숙 · 정인경 외(2007). 척추 압박골절의 원인으로서 감별 진단된Ⅰ형 골 형성 부전증 1예. **대한내분비학회지, 22**(6), 446-452.

이성재(2005). **신체 기능 훈련이 발달장애아의 대 근육 운동기능 및 긍정적 자아 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이세정(2008). **음악놀이 활동이 정신지체 아동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이수진(2008). **자기성장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이 발달장애아동 양육자의 자아 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이승원 · 김현주 · 조재현 · 이형숙 외(2004). 골 형성 부전증 환자에서 파미드로네이트의 치료 효과. **대한내분비학회, 19**(5), 485-491.

이승진(2009).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십대 미혼모의 자기수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영미(2004). 아동의 체형지각과 신체상 지각에 따른 부정적 정서. **대한가정학회, 24**(8), 133-145.

이은선(2002). **장애인들의 자기개념 향상을 위한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이정민(2008). **CCM을 활용한 음악치료와 기독 청소년의 자기개념 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중원 · 김광수 · 김광현 · 강정훈(2005). 청색 공막을 동반한 선천성 골형성 부전증 1예. **동국의학, 12**(2), 69-72.

이해석(2004).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사회 복지적 지원체계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이형숙 · 김현주 · 조재현 · 이승원 · 김현아 · 최준혁 외(2003). 골형성부전증 10예의 임상적 특징. **대한내분비학회지, 18**(5), 496-503.

이혜승(2006). **특수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임학기(2003). **지체부자유 중등 특수학교의 음악수업실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임해주(2008). **집단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보육 시설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자아 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임현정(2009). **노래심리치료가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갖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장효순(1982). 만성질환이 자아개념(Self Concept)과 신체상(Body Image)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12**(2), 80-90.

전헌선 · 박정희 (2008). 지체부자유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의 특성 및 관계 분석.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1**(3), 35-59.

정현주(2002). 청소년 우울증 및 정서장애에 대한 음악치료의 효과성 입증 및 프로그램 개발. **대한음악치료학회지, 3**(1), 38-53.

정현주(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정현주 · 김영신 · 최미환 · 조혜진 · 노주희 · 김동민 외(2006).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정혜선(2003). **가출 소녀의 긍정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조계화, 성기월(2000). 혈액투석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예측변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0**(2), 413~415.

조영미(2005).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상.**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조용환(1999).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조태준 · 박문석 · 최인호 · 정진엽 · 유원준(2003). 골형성 부전증 소아 환자에 대한 주기적 파미드로네이트 정주 요법의 치료 효과, **대한정형외과학회지, 38**(7), 741-747.

조희진(2003). **음악활동을 통한 학습부진 초기 청소년의 자아개념 증진 사례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최기홍(1974). 골형성 부전증.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1**(3), 309-315.

최미환(2004). Extension of therapeutic song writing techniques: 성인 신체 질환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Preparing- Exploring- Creating Process의 적용.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Proceedings of Symposium, 1**(1), 17-25.

최병철(1999).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최소림(2006).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치료활동이 장애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하영란 · 김현주 · 박준수 · 나영문 · 문재호(1999). 뒤시엔느 근디스트로피 환아의 행동, 정서적 문제. **재활의학회지, 23**(5), 940-947.

허준영 · 이규엽 · 박지현 · 이상흔(2009). 골 형성 부전증 환자에 시행한 인공와우 이식술 1예. **대한이빈인후과학회지, 52**(3), 289-292.

현수경(1999). **Songwriting을 사용한 음악치료가 알코올 환자의 자아 존중감 및 통제소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Bailey. L. M. (1984). The Use of Songs in Music Therapy with Cancer Patients & Their Families. *Music therapy. 4*(1), 5-17.

Battle, J. (1992). ***Culture Free Self-esteem Inventory.*** Proed: Austin.

Bonny, H. L., Savary, L. M.(2005). ***Music and your mind: Listening with a New Consciousness***. 최미환(역).(2006). **음악과 마음.** 서울: 시그마프레스.

Broczon R. M.(1997). ***Music Therapy group vignettes.*** 이정실 (역). (2004). **집단음악치료.** 서울: 학지사.

Deimling, G. T. & Bass, D. M. (1986) Symptoms of Mental Impairment Among Elderly and Their Effects on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41***(6), 778-784.

Deusinger, I. M. (1986). ***Die Frankfurter Selbstkonzeptskalen(FSKN).*** Göttingen: Verlag für Psychologie.

Gaston, E. T. ed.(1968). ***Music in Therapy.*** New york: Macmillan.

Johnson, E. R. (1981). The Role of Objective and Concrete Feedback in Self-Concept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in Music 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18***(3), 137-147.

Patterson, G. 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4), 432-444.

Pricisalla, W. (1996). *Managing Osteogenesis Imperfecta: A Medical Manual.* _____: Osteogenesis Imperfecta Foundation

Roger,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ABSTRACT

The Effect of Song Psychotherapy for Improving Osteogenesis Imperfecta Patients' Self-Concept

Moon-Ju, Bae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ng psychotherapy on an osteogenesis imperfecta patients' self-concept.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2nd to April 15th, 2010. The participants were 3 adult outpatients with osteogenesis imperfecta at G Hospital in K University, Seoul. The patients' self-concept scores were limited to less than 50. The experiment used an individual song psychotherapy program that contains a total of 14 sessions; 2 sessions were implemented each week.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 program revealed a positive outcome for self-concept, we performed a pretest and post-test with the "Sungsin Self-concept Inventory#(SSI)." The SSI measured the level of one's self-concept, and analyzed the participant's verbal and musical responses during each ses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song psychotherapy was applied to the osteogenesis imperfecta patients,

their overall self-concept score increased. Specifically, for participant A, the pretest score was 45, but increased to 50.8 point at the post-test measure. In addition, participants B and C showed enhancements from 44.8 to 50.8 and from 46 to 50.4, respectively. That is, all participants showed higher post-test levels of self-concept after the program.

Second, song psychotherapy was applied to the osteogenesis imperfecta patients. Their verbal and musical responses related to self-concept were recorded in each session. As a result, positive changes were observed during exploratory stages#(4th session to 9th session), although individual gaps existed.

Accordingly, the song psychotherapy applied in this study appears to be effective for improving osteogenesis imperfecta patients' self-concept.

부록

<부록 1> 성신자아개념 검사지

다음은 당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활방식이 있기 때문에 맞고 틀린 답은 따로 없습니다. 읽어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아래의 여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 표시하시면 됩니다.

번호	질 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쉽게 감정을 잘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 꺼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자주 긴장되고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사람들이 내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내 친구들보다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때로는 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같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친구들의 성공소식을 들으면 나는 패배자가 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보면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나는 미래를 자신감 있게 바라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대체로 사람을 믿는 편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나는 내 자신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앞으로 내게 닥칠 일을 해낼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여러 사람 앞에서는 내 주장을 펴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나는 가족들로부터 사랑 받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내 자신에 만족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어떤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게 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사람들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9	할 말이 있어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못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30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잘 가려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1	친구와 생각이 달라도 반대의견을 말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2	이제까지 실패보다 성공했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33	혹시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까봐 신경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34	우리 가족들은 나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35	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36	사람들이 내 생각을 지지해주지 않아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37	나는 인생에서 패배자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38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39	나는 자주 이랬다 저랬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0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41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잘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⑥
42	나는 별로 친구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43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많이 의식하며 행동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4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으면 선뜻 들어가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45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46	생각이 다르면 상대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7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해내는 일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48	사람들의 신뢰를 별로 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9	내가 처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50	나는 대체로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51	가끔 사소한 일로 잘 삐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2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3	모임에 나가면 다들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가만히 있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54	누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불안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55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56	어디를 가든 내 밥그릇을 찾아 먹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7	어려운 상황이 되면 친구들이 나를 외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58	나는 너무 예민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59	대부분 내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 후회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60	문제가 생각 때마다 겁부터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1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도 결정을 잘 못 내리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62	사람들이 나를 좀 대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63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내 행동이 많이 좌우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4	내 나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성공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65	왠지 모르게 늘 불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66	관계가 나빠질까봐 상대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67	나는 자주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68	나도 다른 사람만큼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9	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70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쩐지 좀 싫고	①	②	③	④	⑤	⑥

	내키지 않는다						
71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72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만나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73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74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75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76	비판적인 말을 들어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77	다른 사람만큼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78	중요한 순간에 실패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79	나도 내가 남자(여자인 경우는 여자)인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80	가능만 하다면 내 자신을 많이 뜯어고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81	나는 무엇이든 해낼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2	내 자신에 대해 종종 창피하게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3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건강하고 튼튼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84	갑자기 놀라고 당황하는 일이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5	나도 대체로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86	우리 가족들은 내 심정을 잘 이해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